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장일홍의 제주 4·3사건
소재 희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김 봉 건

2013년 12월

홍 창 수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장일홍의 제주 4·3사건
소재 희곡 연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김 봉 전



김봉건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홍 창 두 (인)

위 원 김 옥 리 (인)

위 원 이 혜 원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극작가 장일홍의 4·3사건을 소재로 한 희곡에서 4·3사건을 어떻게 극화하였는지 살펴보며 장일홍의 작가 인식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일홍은 제주 출신 작가답게 자신의 작품 중 절반인 11편을 제주 소재로 창작했으며 그 중 7편을 4·3사건 소재로 창작하였다. 특히 그의 극작가로서의 업적이 4·3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공인된 만큼 장일홍의 4·3사건 소재 희곡 연구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일홍에 대한 연구결과가 그리 많지는 않다. 먼저 학위논문으로 장일홍에 관한 작가연구는 없다. 4·3사건 소재 희곡을 연구한 학위논문에 함세덕의 「산사람들」 희곡 연구와 오태석의 「앞산아 당겨라 오금아 밀어라」 등이 거론 되나 4·3사건 소재 희곡을 전문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장일홍에 관한 학술자료로는 김남석의 논평이 유일하다. 김남석의 논의는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장일홍의 연극세계를 연구했다는 데 그 업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일홍의 극작술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만을 연구하여, 전체적인 연구가 형식적인 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 장일홍의 작품에 대한 논의는 김미도, 송창선 등의 작품 서평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두 논의는 한 작품집만을 집중 분석하거나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다른 장르의 작품과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여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작가 의식의 흐름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어 극화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따라서 장일홍의 4·3사건 소재 희곡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위의 연구를 위해 먼저 4·3사건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 정리하고, 장일홍이 4·3사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



화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극화되는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4·3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여 당시 국내·제주도의 정치상황과 4·3사건의 전개를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 좌익과 우익, 그리고 중도의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장일홍의 작품을 분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4·3사건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극화 과정을 네 개의 소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소항목에서는 4·3사건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비극적 가족의 운명을 다룬 두 작품을 연구해 보았다.

두 번째 소항목에서는 4·3사건을 전면으로 다뤄 비극적 사실주의로 풀어낸 「붉은 섬」을 연구하였다. 본 항목은 4·3사건을 겪지 못한 작가가 직접 4·3사건을 재현하며 마주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세 번째 소항목에서 이전에 논의된 4·3사건 작품들과는 거리를 두어 살펴보았다. 하여 4·3사건의 이념논쟁에 대한 허무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4·3사건에 대해 지적하였다.

네 번째 소항목에서는 화해와 상생의 길을 보여주며 하나의 담론을 도출해내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것은 작가의 민중주의적인 관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장일홍의 4·3사건을 소재로 한 희곡의 연구를 통해 4·3사건을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4·3사건의 담론변화에 따른 의식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장일홍은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지만 이러한 역사의 잔해가 제주지역의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에 주목하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진정한 상생을 도모하려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키워드 : 제주4·3사건, 장일홍, 4·3문학, 4·3희곡, 제주문학, 제주희곡



목 차

I. 서론

- 1. 연구 목적 1
-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5

II.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배경

- 1. 당시 국내와 제주도의 정치 상황 9
- 2. 사건의 전개 11
- 3. 역사적인 평가 19

III. 제주 4·3사건의 극화와 작가인식

- 1. 비극적 가족의 운명 24
- 2. 폭동론에 대한 저항의식 38
- 3. 허무(虛無)와 유토피아 46
- 4. 화해와 상생 63

IV. 결론 70

- 부록 72
- 참고문헌 73
- Abstract 77



I. 서론

1. 연구 목적

제주 4·3사건¹⁾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²⁾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4·3사건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배담론으로서 ‘공산폭동’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이에 문학인들은 지배담론에 저항하며 저항문학 작품을 발표해갔다. 이러한 문학인들의 저항과정은 학계나 저널리즘보다도 앞서 저항담론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4·3항쟁’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처럼 4·3사건과 문학은 불가분의 관계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4·3문학³⁾은 저항문학적 성격으로 현기영의 『순이삼촌』⁴⁾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희곡에서도 장일홍, 강용준⁵⁾, 김정훈⁶⁾ 등 제주출신 극작가들이 지속적으로 4·3사건을 다루어 희곡이 4·3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하였다.

4·3사건은 ‘폭동론’에서 ‘항쟁론’, ‘양민학살론’에 이어 ‘화해·상생론’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담론의 정의가 바

1) 역사학계에서도 ‘사건’, ‘항쟁’ 등, 4·3에 관해 시각에 따라 다른 정의를 내린다. 본고에서는 정부에서 공인한 정의인 ‘사건’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3) 제주도 4·3사건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4)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비평사, 1978.
5) 제주 출신 극작가, 제주 소재 극단 이어도를 창단하였으며 제주연극협회 회장, 제주문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경희대 국문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희곡집으로 『방울소리』(1991), 『폭풍의 바다』(1996), 『파도에 길을 묻다』(2007), 『외할머니』(2012)가 있다.
6) 제주 출신 시인, 극작가, 제주 소재 마당극 전문 극단인 ‘놀이패 한라산’의 회원이며 현 제주4·3평화재단 산하 제주4·3추가진상조사단의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작품집으로는 마당극 대본집 『살짜기 읊서예』와 『4월 곳 한라산』이 있다.



뀌어 왔다. 그래서 본고는 4·3사건을 소재로 다룬 희곡이 사회 담론의 변화에 따라 작가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인식의 변화가 극화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4·3사건을 소재로 발표된 희곡은 총 30편으로 그 중 제주출신 극작가들이 27편을 발표했다.⁷⁾ 이외에도 4·3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을 집필한 극작가로는 함세덕, 하상길, 오태석 등이 있는데 각각 「산사람들」(1949~1950), 「느영 나영 풀멍 살게」(1995), 「앞산아 당겨라 오금아 밀어라」(2003)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장일홍은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1988), 「강신무」(1990), 「붉은 섬」(1991), 「하모니카」(2000), 「이어도로 간 비바리」(2000), 「우리를 잠들게 하는 별들의 합창」(2002), 「불멸의 영혼」(2008) 등 총 일곱 작품을 발표했다.

장일홍은 출간하는 희곡집마다 4·3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을 실었으며 4·3사건을 소재로 다룬 작품 중 최초로 199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한다. 또한 4·3사건 일련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붉은 섬」과 4·3사건 당시 평화협정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기록한 「불멸의 영혼」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4·3사건을 집필하였다. 「이어도로 간 비바리」는 2003년 전통연희 창작희곡 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이운택에 의해 굿극⁸⁾ 형식으로 연출 되어, 한국연극의 대안양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7) 장일홍이 일곱 작품, 김경훈이 열 작품, 강용준이 여덟 작품을 발표했다. 또한 문무병, 장윤식 역시 제주 출신 극작가이다. 이들은 아직도 제주연극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8) ‘굿극’이란 용어는 연희단거리패 연출가 이운택의 명명인데, 이운택은 장일홍의 희곡 <이어도로 간 비바리>를 <초혼>이라고 개칭하여 2004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하면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굿극’은 한 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적 서구극의 구성을 해체하여 우리 굿의 구조 속에 드라마를 용해시켜 넣는 공연 양식이다. 제주굿을 연극으로 재창조하였다는 점에서 1980년대의 마당굿과 2004년의 ‘굿극’은 유사하지만 마당굿이 연극의 표현 양식으로 굿을 차용한 데 반해서 ‘굿극’은 굿을 서구극의 구조 속에 가두어 넣는 것을 해체시켜서 오히려 연극(드라마)을 굿이라는 불가마 속에 넣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굿과 드라마가 동시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면 굿과 드라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굿 속에 드라마가 있고 드라마 속에 굿이 있는 혼융의 양식이 창출되는 것이다. 연극평론가 서연호는 ‘굿극’이 한국연극의 대안양식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한



고 평가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4·3사건을 소재로 집필한 극작가 중 장일홍의 작품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장일홍은 지속적으로 4·3사건에 관심을 갖고 극화해왔을 뿐 아니라 4·3사건 소재를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작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극작가 장일홍의 4·3사건을 소재로 한 희곡에서 4·3사건을 어떻게 극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장일홍의 작가 인식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일홍은 1985년 「제노비아」로 등단⁹⁾하여 1991년 첫 번째 희곡집 『붉은 섬』을 간행하였고, 2003년 『이어도로 간 비바리』에 이어 2008년 세 번째 희곡집 『내 생애 단 한번의 사랑』을 간행하였다.

장일홍은 1950년 1월, 제주에서 태어나 1969년 오현고를 거쳐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과를 진학했으나 중퇴한다. 이후 장일홍은 제주에 내려와 군입대 전 제주의 연극인들과 작품을 만들며 생활하던 중 본격적인 희곡 집필을 시작하여 1983년 제1회 지방연극제에 「과도야 어찌란 말이나」를 써서 출품한다.

장일홍은 「카나리아의 죽음」(1984)에서 감옥에 갇힌 네 명의 죄수들이 벌이는 연극놀이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절망을 낳게 되는 현실을 풍자하였다. 곧이어 발표한 「제노비아」(1985)에서는 현세에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던 제노비아가 지옥에서조차 간수를 유혹하는 등 염라대왕의 심기를 건드려 다시 현세에 암개로 환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작품으로 장일홍은 《현대문학》에 추천되어 등단하게 된다. 이후 재벌가 이복형제들간의 재산다툼을 소재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풍자한 「인간은

심포지엄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 『제주문화예술60년사 2권』,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8장, 제2절, 7항. 「2000년대와 ‘굿극’의 등장 - 장일홍」

9) 1984년 「카나리아의 죽음」으로 《현대문학》에 추천된 장일홍은 다음 해 다시 한 번 추천된다. 《현대문학》의 규칙 상 두 번 추천 받아야 등단으로 인정되기에 1985년 등단한 것으로 본다.



인간에게 이리」(1987)에 이어 4·3사건을 다룬 첫 번째 작품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를 집필한다. 다음 해 월남전을 배경으로 죽어가는 전우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살인을 한 시민이 15년 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는 내용을 그린 「어둠의 통곡」(1988)을 발표한다. 이어 순진한 청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죽는 과정을 그린 「우리를 잠들게 하는 새들의 합창」과 「강신무」, 「붉은 섬」을 하나로 엮어 첫 번째 희곡집 『붉은 섬』¹⁰⁾(1991)을 간행하게 된다. 『붉은 섬』은 같은 해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한다. 불혹을 넘긴 중견 극작가 장일홍의 희곡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다.

장일홍은 두 번째 희곡집 『이어도로 간 비바리』¹¹⁾(2003)로 2004년 《월간문학》의 동리상을 수상하였다. 『이어도로 간 비바리』에서 사이코드라마 「아직도 아나벨리를 기억하세요?」(1994)를 통해 비인간적인 우리 사회의 비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황색 그리스도」(2001)에서는 종교를 소재로 하여 여성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그는 「허생의 웃음소리」(2001)에서 박지원의 「허생전」을 패러디하여 넌센스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등 소재 발굴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자기 땅에 유배된 사람들」(2000)을 통해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베릿내라는 실제 배경을 무대로 설정하고 베릿내 마을이 민속촌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묘사해 내어 ‘제주도 작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작품¹²⁾’이라는 평을 받았다. 4·3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은 「하모니카」, 「이어도로 간 비바리」, 「우리를 잠들게 하는 별들의 합창」 등으로 각기 다른 형식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내 생애 단 한번의 사랑』¹³⁾(2008)은 장일홍의 나이 58세에 낸 세 번

10) 장일홍, 『붉은 섬』, 문학과 비평, 1991.

11) 장일홍, 『이어도로 간 비바리』, 연극과 인간, 2003.

12) 서연호, 「연극으로 되살려낸 제주도 수난사」, 『이어도로 간 비바리』, 연극과 인간, 2003, p.418.

13) 장일홍, 『내 생애 단 한번의 사랑』, 연극과 인간, 2008.



째 희곡집이다. 「내 생애 단 한번의 사랑」과 「우리가 가야 할 떠나면 길」은 자폐증에 걸린 인물을 다룬다. 「슬픈 유목민」은 해외입양아들이 겪는 인종차별 문제를 비롯하여 입양을 한 부모들의 이혼에 의해 벌어지는 가정의 붕괴까지도 다루어 단순히 한국의 해외 입양문제를 넘어선 작품이다. 특히 제주 설화 설문대의 이야기를 다룬 「탐라 오디세이」, 삼별초 사건을 다룬 「민중의 장두 김통정」, 4·3사건을 다룬 「불멸의 영혼」 등 제주 소재의 작품이 많다는 것이 세 번째 희곡집의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국희곡》 2012년 가을호에 발표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역시 제주 신화 <가문장아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작품이다. 그는 최근 네 번째 희곡집을 출간 하였다.¹⁴⁾ 네 번째 희곡집에 수록된 작품을 제외하고, 발표된 작품은 총 22편이다. 장일홍은 제주 출신 작가답게 자신의 작품 중 절반인 11편을 제주 소재로 창작했으며 그 중 7편을 4·3사건 소재로 창작하였다. 특히 그의 극작가로의 업적이 4·3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공인된 만큼 장일홍의 4·3사건 소재 희곡 연구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앞서 기술하였듯이 한국근현대희곡사에서 장일홍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연구결과가 그리 많지는 않다. 먼저 학위논문으로 장일홍에 관한 작가연구는 없다. 4·3사건 소재 희곡을 연구한 학위논문에는 함세덕의 「산사람들」¹⁵⁾ 희곡 연구¹⁶⁾와 오태석의 「앞산아

14) 장일홍,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연극과 인간, 2013.11.

15) 함세덕, 「산사람들」, 『문학예술』, 1949.12~1950.3.

16) 김문홍, 「함세덕 희곡의 극적 전략과 의미 구조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96.

김성현, 「함세덕 희곡 연구-해방 전후 희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1.

김수미, 「함세덕 희곡의 대중성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1991.



당겨라 오금아 밀어라」 17) 등이 거론¹⁸⁾ 되나 4·3사건 소재 희곡을 전문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장일홍에 관한 학술자료로는 김남석의 논평이 유일하다.

김남석은 장일홍을 ‘제주도의 역사, 특히 4·3사건과 관련된 피맺힌 한을 기억하고 이를 무대 위에 표현하는 것에 사명을 건 연극인’ 이라고 서론에서 소개한다. 특히 김남석은 장일홍의 ‘극작술의 본질은 4·3사건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론의 테마를 분류한다. 먼저 ‘성적 묘사의 대담함과 정당함’에서 「제노비아」, 「우리를 잠들게 하는 새들의 합창」,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 「아직도 아나벨리를 기억하세요?」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장일홍의 극작술에 성적(SEX)묘사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김남석은 다음 ‘극중극 기법의 도입과 그 의미’에서 장일홍의 연극관과 극작술의 본질이 4·3사건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가 나고 성장한 제주도가 아이러니한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양민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었고 죽은 자들의 시신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죽은 자들의 친척이라고 매도당해야 했다. 여인들은 어려서 점령군의 군화발에 짓밟히기 일쑤였고 원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거나 원하지 않는 자식을 낳아야 했고 그것이 싫으면 산으로 도망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거나 유격대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모든 체험들이 정상적인 상궤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세계의 질서를 구현하고 운영하는 자연과 인간의 이법이 망실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안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사라져도 망령과 원한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쉽게 잊으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 분노와 상기의 수단이 바로 연극이다. 19)

17) 서연호, 『오태석공연대본전집』 14권에 수록.

18) 박상은, 「오태석 희곡에 나타난 기억의 의미와 극적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김남석은 장일홍의 극중극 기법이 4·3사건을 겪은 그에게 필연적인 극작술임을 언급하며 「붉은 섬」의 종장, 「카나리아의 죽음」의 ‘최면놀이’, 「아직도 아나벨리를 기억하세요?」의 사이코 드라마적 기법, 「강신무」의 굿 등을 극중극 기법의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는 각각의 작품들에 사용된 극중극 기법이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단점을 보완한 작품이 「이어도로 간 비바리」라고 주장한다.

김남석의 논의는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장일홍의 연극세계를 연구했다는 데 그 업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어도로 간 비바리」 외에 장일홍의 두 번째 작품집에 있던 4·3사건 작품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과 장일홍의 극작술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만을 연구하여, 전체적인 연구가 형식적인 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

장일홍의 작품에 대한 논의는 김미도, 송창선 등의 작품 서평²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김미도는 장일홍의 『붉은 섬』에 대한 서평을 통해 장일홍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무대 테크닉에 익숙하다고 말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리얼리즘극 계열에서, 그것도 “탐라”와 “4·3사태”의 비극성을 무대화하는 측면에서 탁월한 연극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송창선은 『교육제주』에서 4·3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장일홍의 「붉은 섬」과 현기영의 「순이 삼촌」에 대해 논하였다. 위 두 논의는 한 작품집만을 집중 분석하거나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다른 장르의 작품과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작품집에서 여러 작품을 다루더라도 장일홍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작품의 서평에만 그치다 보니 장일홍 작품 경향의 패러다임과 변모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족한 감이 있다.

19) 김남석, 「살아남은 자의 기록」, 『제주의 작가들』, 도서출판 삼지, 2010. 참고.

20) 김미도, 「탐라의 비극성-장일홍의 「붉은 섬」을 읽고」, 문학과 비평사.

송창선, 「제주 출신 작가의 작품 속 배경을 찾아서, 6 : 4·3 그 아픈 가슴은 바람이 되고 선이 되어」, 『교육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6.



장일홍에 대한 연구는 작품집에 실린 해설²¹⁾과 위의 논의가 대부분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형태적인 것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작가 의식의 흐름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어 극화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따라서 장일홍의 4·3사건 소재 희곡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²²⁾

위의 연구를 위해 먼저 4·3사건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 정리하고, 장일홍이 4·3사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극화되는지를 연구하도록 한다.

위를 토대로 장일홍의 4·3사건 소재 희곡을 작가 인식의 변화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째 단계에서는 가족 간의 문제를 통해 4·3사건을 다룬다. 이러한 방식은 4·3을 비극적 가족의 운명으로 축소시켜 사건을 정치이념으로 확장시키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폭동론에 맞서며 4·3사건을 다룬다. 정치이념을 전면에서 내세워 본격적으로 다루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념에 매몰되어 있던 허무와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 유토피아를 꿈꾸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4·3사건을 통한 화해와 상생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좀 더 연극적인 형태로 다룬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장일홍이 제주 4·3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 변화에 따라 작품은 어떻게 극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1) 서연호, 「현실에서 재해석되는 제주도민의 과거사」, 『붉은 섬』, 문학과 비평, 1991, pp.280~287.

서연호, 「연극으로 되살려낸 제주도 수난사」, 『이어도로 간 비바리』, 연극과 인간, 2003, pp.407~418.

서연호, 「장일홍의 희곡에 나타난 역사의식」, 『내 생애 단한번의 사랑』, 연극과 인간, 2008, pp.330~331.

22) 「우리를 잠들게 하는 별들의 함창」은 「붉은 섬」과 흡사한 장면 구성과 진행 등을 비롯, 작가의 의도인 알레고리적인 표현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고 작가의 의식의 흐름이 「붉은 섬」에서 변화하질 않았다. 이를 근거로 작가의 4·3 극화 과정의 연장선상에 놓이질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 하였다.



II. 4·3사건의 역사적 배경

1948년 11월 중순, 제주 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약 5개월에 걸친 대규모의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됐다. 인명피해는 2만 여명으로 4·3사건 기간 전체 인명피해의 70%이상이 이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말 그대로 제주도는 ‘초토화’²³⁾ 됐다.

왜 대규모의 초토화 작전이 이 시기에 결정되고 실행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내와 제주도의 다른 정치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내와 제주도의 정치 상황

1) 국내의 정치 상황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한국 민중들은 전 한반도 수준에서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자주적 인민정권 수립을 시도했다.²⁴⁾ 그들은 우선 중앙차원에서 조선전국준비위원회(건준)를 결성한 데 뒤이어 9월 초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결성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해 나갔다. 특히 지방의 지도자는 민중의 신망을 받은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 추대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일세력은 자취를 감추고 좌익 세력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1945년 10월 10일에는 군정장관 아놀드가 격렬한 용어로 인공의

23) “해안에서 한라산으로 4km이내의 부락은 대부분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초토화되었으므로 주민들은 대부분이 산중으로 피난하여 반도들과 야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약 15,000명을 하산시켜 수용하고 대민사업을 실시하였다.”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I-해방과 건군』, 1967, p.445.

24) 박명림, 「서론: 해방, 분단, 한국전쟁의 총체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6』, 한길사, 1989, p.27.



존재를 거부하고, “북위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는 미군정(맥아더 원수의 포고, 하지 중장의 일반명령 및 군 정부의 민정명령에 의거하여 창설된 정부)” 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²⁵⁾

이후 미군정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우익세력의 강화와 동시에 미군정 관료 체제 구축에 나섰고, 이에 따라 일제의 경찰체계를 부활시켰다. 일제 식민 경찰에 근무했던 조선인들을 대부분 재임명하여 남조선 국립경찰을 재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를 공산주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항하기 위함이 가장 컸다.

2) 제주도의 정치 상황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1945년 9월 10일이다. 중앙의 상황과는 1947년 3·1절 발포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미군정과 인민위원회 사이는 심각한 긴장관계가 아니었다. 본토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 지역의 좌파 영향력은 강했다.

제주도 좌익의 영향력이 큰 것은 해방 후 인구의 급속한 증가, 일제 통치와 미군정 통치 사이의 비교적 긴 공백기, 통신 및 교통의 불편, 비교적 분화된 직업구조, 지배적인 좌익의 온건한 정책 등을 이유로 든다.

1945년 11월부터 시작되었던 제주도 미군정의 정책 역시 중앙 및 본토의 미군정 정책과는 조금 달랐다. 그들은 제주도 좌익 주도의 인민위원회 활동을 적극 탄압하거나 배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협조하거나 방임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인민위원회 등을 앞세운 제주도 좌익세력은 치안 및 자치교육활동 등 비교적 온건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25) 『매일신보』, 1945년 10월 11일.



2. 사건의 전개

1) 4·3사건의 시기 구분

4·3사건의 총체적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4·3사건의 발발을 기점으로 첫 번째 3·1집회부터 4·3봉기까지 (1947.3.1 ~ 1948.4·3.) 두 번째 무장봉기와 초기무력충돌까지 (1948. 4. 3 ~ 1948. 10. 10) 세 번째 주민 집단희생 및 사태평정기(1948. 10. 11 ~ 1957. 4. 2.)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① 제1시기 (1947.3.1.~1948.4·3)

1947년 3월 1일, 3·1 기념집회를 강경 진압함으로 6명의 민간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회와 시위의 해산과정에서 미군이 직접 동원된 곳은 제주도가 유일했다.²⁶⁾

‘3·1발포사건’ 발생 직후 이에 대한 항의로 제주도민들은 대거 총파업에 나섰다. 1947년 3월 10일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총파업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유형의 민관 총파업이었다. 각급 학교의 교사와 학생, 은행과 통신기관, 운송업체, 공장의 관리자와 노동자, 심지어 미군정청통역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 같은 총파업의 감행에 제주도 좌익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도 행정조직의 상당수 관공리와 일부 경찰까지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으로도 그것이 단지 좌익세력의 선동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닌, 제주도민의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발포의 무모성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26) “미군이 제주지역 군중해산을 지원했다” Hq.6th Inf Div, G-2 Peridic Report, No.500, March 2, 1947.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인 제주도 사태를 종합 분석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서에는 3·1발포사건을 4·3사건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보다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경찰의 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에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이 제주 읍에서 일단의 좌익 3·1절 행사 참가자들을 공격하여 몇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제주 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여 일으킨 소요들은 제주도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의하여 비교적 느슨하게 억제되어 있었다. 공격을 받은 섬 주민들은 경찰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을 하였고, 1년여에 걸친 유혈폭력이 시작되었다.²⁷⁾

그러나 미군정은 남로당의 대중선동에만 신경을 썼다. 따라서 총파업에 대한 강경 탄압 정책이 뒤따랐다. 우선 미군정은 제주도에 본토 경찰을 대거 투입하는 조치를 취해 이미 ‘3·1발포사건’ 전에 파견되었던 100명의 충남북 경찰력 이외에 3월 15일에는 전남북 경찰 222명이, 18일에는 경기 경찰 99명이 투입되어 총 421명이나 되었다. 이 본토 경찰력 수치는 당시 제주 경찰관 수 330명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²⁸⁾

미군정 당국이 제주도를 급진 좌경화된 지역으로 인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친미적인 사대주의적 우익 인사들의 영향도 컸다. 미군 보고서는 “우익 서북청년회 제주도 위원장 안철은 지난주 ‘제주도는 한국의 작은 모스크바’ 이며, 자신은 이러한 주장을 방첩대에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²⁹⁾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3·1절 시위 직후 제주를 순시한 조병옥 경무 부장은 “3·1사건의 원인은 북조선의 세력과 통모하고 미군정을 전복하여 사회적

2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2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122.

2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92, November 24, 1947.



혼란을 유치하려는 일부의 책동으로 말미암은 것”³⁰⁾이라고 발표하였고, 경무부 차장 최경진(崔慶進)은 “제주도민은 90%가 좌익색채이다”라고 언급하였던 것이다.³¹⁾

미군측은 여러 정보 분석을 토대로 ‘제주도는 좌익 본거지’라고 규정하기 시작했다. 가령 주한미군사령부 1947년 3월 19일자의 정보보고서에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에 정치적으로 동조하는 듯하다.”고 기록한데 이어 3월 20일자의 주간 정보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에 동조적이거나 혹은 좌익정당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고 쓰고 있다. 제주도 미군정 당국은 3·1절 기념집회의 강경진압 이후 제주도는 인구의 70% 이상이 좌익단체의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들의 거점으로 인식하였다.³²⁾

이후 1947년 하반기에 들어 경찰의 비호 아래 서북청년회 등 반공우익 청년단체원들의 제주도 진입이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탄압에 더한 그들의 악행은 제주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제주도의 좌익세력 및 도민들에게 강경한 탄압정책을 시행했던 미군정의 정책은 약 1년에 걸친 갈등의 악순환 끝에 4·3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3·1발포사건’은 ‘4·3무장봉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제2시기(1948. 4. 3~1948. 10. 10)

이 같은 상황에서 남한 내 각 정치세력은 단선단정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재편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초 남한 정치세력은 이승만 및 한민당

30) 『독립신보』, 1947년 3월 21일.

31) 『한성일보』, 1947년 3월 13일.

32)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March 20, 1947.



세력 등 단선단정 지지세력, 김구·김규식 등의 남북협상 세력, 그리고 남한 단선단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자 했던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진영 등으로 나타났다.³³⁾ 이들 중 남로당 중심의 남한 좌익진영은 남한에서의 단독선거가 실시가 확정적으로 되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투쟁에 나섰다.

이상과 같이 본토에서 남한 단선단정 반대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48년 4월 3일 새벽 제주도에서는 수백 명의 무장자위대가 도내 24개서의 12개 지서를 습격하고 동시에 서북청년회, 대동 청년단 요인들과 우익 요원들에 대한 일제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하루 동안 14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³⁴⁾

4·3봉기는 단선단정 반대투쟁의 와중에서 발생했지만, 그 전 해 3·1절 발포사건 이후 강화되었던 경찰 및 우익 청년단체의 탄압에 누적되었던 갈등이 터져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³⁵⁾

미군정은 무장봉기 사태초기에 이를 ‘치안 상황’으로 판단하여 도내 군사 병력을 증가하였고, 경무부장 조병옥은 조기 진압방침을 정해 서북청년단원 500명을 제주도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³⁶⁾ 특히 조병옥은 4월 14일자로 ‘도민에게 고함’이라는 선무문을 발표, “여러분은 민족을 소련에 팔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분자의 흉악한 음모와 계략에 속은 것”이라고 사태의 성격을 규정했다.³⁷⁾

이 와중에 미군정은 이미 4월 10일께 제주도령을 공포, 육지부와의 해상 교통망을 일체 차단하였다.³⁸⁾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진정기미가

3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147.

3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167.

3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p.162~165. 참조. “따라서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청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 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

36) 북한연구소, 『북한』, 1989년 4월호, p.127.

37)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38) 『동아일보』, 1948년 4월 17일.



보이지 않자 미군정 수뇌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현지를 방문했다.

경찰의 초기 진압이 실패로 돌아가고 게릴라 투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후 경찰력만으로 한계를 느낀 미군정 수뇌부는 경비대 9연대를 진압작전에 참여토록 명령한다.³⁹⁾

출동명령을 받은 9연대 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우선 게릴라 측과 평화회담을 모색하여 그 결과 양측은 마침내 4·28평화회담의 성공에 다다를 수 있었다.⁴⁰⁾ 그렇지만 어렵사리 이루어진 이 같은 합의도 우익단체 단원들에 의해 자행된 오라리마을 방화사건 등에 의해 깨어지고 말았다.⁴¹⁾

5·10선거를 앞두고 제주사태를 조기 진압하기 위한 미군정의 방침과 조병옥 경무부장과의 불화로 인하여 김익렬 중령은 9연대장에서 즉각 해임되었다.⁴²⁾ 이로써 평화협상은 물거품이 되고 5월 6일 김 중령 후임 연대장으로 박진경 중령이 부임했으며 수원에서 창설된 11연대가 제주에 추가로 파견되었다.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 총선거 결과 제주도내 3개 선거구 중 북제주 갑·을 등 2개 선거구가 과반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⁴³⁾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남한지역 내의 유일한 단선 거부 지역으로 미군정의 타깃이 되고 만 것이다.

5·10선거가 저지된 직후 군 병력과 함께 응원경찰대도 크게 증강되었다.⁴⁴⁾ 미군정은 증강된 병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5월 중순께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브라운 대령(미군 20연대장)을 파견, 제주 현지작전의 최고 지휘관으로 경비대, 해안경비대, 경찰과 미군을 통솔하도록 했다.⁴⁵⁾ 브라운

39) 『독립신보』, 1947년 4월 5일.

4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②」, pp.111~146. 참조.

41) 양조훈, 「제주도 메이데이를 통해 본 미군정의 4·3토벌정책」, 『제주4·3 51주기 기념 세미나 자료집』, 제주 4·3연구소, 1999.

42) 「통위부 특명」 제52호, 1948년 5월 6일

4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천인, 2003. pp.210~212.

44) 『조선일보』, 1948년 5월 18일, 『독립신보』, 1948년 5월 19일, 『서울신문』, 1948년 5월 21일



대령은 원인 치유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강경한 진압으로만 일관했다.⁴⁶⁾

신임 박진경 연대장도 그 동안의 경비대의 온건 전략에서 탈피, 대대적인 토벌 위주의 작전을 전개했다. 그가 연대장 취임식 때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⁴⁷⁾고 발언했다는 김익렬의 증언으로 보아도 그의 강경진압작전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던 와중에 6월 18일 박진경 대령이 그의 숙소에서 부하에게 암살당한다. 이는 일명 ‘초토화 작전’의 시발이 된다.

③ 제3시기(1948. 10. 11.~1957. 4. 2.)

신임 송요찬 9연대장은 10월 17일 해안선으로부터 5km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⁴⁸⁾ 중산간 초토화 작전은 이미 그 해 4월 딘 군정 장관의 정치고문이 김익렬 당시 9연대장에게 요구했던 작전이다.

이 작전을 위해 경비대 사령부는 10월 18일 제주해안을 봉쇄하고 여수 주둔 14연대 1개 대대의 제주파견을 명령했다. 그러나 출동준비 중이던 14연대 장병들이 출동 전날인 10월 19일 반란을 일으키는 여순사건이 일어난다. 사태는 건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미군군사고문단 지휘부가 직접 전투를 지휘해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나섰다. 사건이 한창인 10월 22일 국방장관 이범석은 국회에 출석해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 사태를 전국에 전개하려 한다.”⁴⁹⁾고 발언해 제주도 사태에 대한 향후 정부의 대응을

4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천인, 2003. p.213.

46) 『조선일보』, 1948년 6월 3일.

47) 김익렬, 실록유고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취재반, p.345.

48) 『조선일보』, 1948년 10월 20일.

49) “제헌국회 속기록 제1회 제90호”, 1948년 10월 28일.



예고했다.

이 시기 제주도의 무장대는 조직을 재편성해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무장대는 10월 24일 이덕구의 명의로 이승만 정부에 선전포고하고 토벌대에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한편⁵⁰⁾ 경찰과 경찰 가족, 우익 인사에 대한 습격을 벌여 인명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토벌대는 본격적인 초토화 작전으로 이에 맞섰다. 중산간 마을들은 무장대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민 소개령이 내려진 뒤 소각됐다.⁵¹⁾

9연대 선임하사였던 윤태준은 “송요찬 연대장은 초토화 작전을 폈다. 거쳐 가능한 곳을 없애라, 또는 불태워 버리라고 했는데 이런 건 육지에서도 없었다. 초토화 작전이 상부의 지시인지 또는 연대장 독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요찬 연대장은 일본군 출신으로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다” 고 증언했다.⁵²⁾

주한미군보고서 1949년 4월 1일자에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 4,000~1만 5,000명의 주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80%이상은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 고 적고 있다.⁵³⁾ 이는 초토화 작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12월 중순경부터 제주 주둔군과 경찰에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투입했다.⁵⁴⁾ 이어 12월 29일 9연대와 교대해 여순사건에 투입됐던 2연대(연대장 함병선 중령)가 제주에 도착했다.⁵⁵⁾

이 시기 정부는 무장대의 주력이 섬멸된 것으로 보고 12월 31일, 제주도 지구의 계엄령을 해제했다.⁵⁶⁾ 그러나 이덕구가 이끄는 무장대는 토벌대 교

50) 김봉현, 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문우사, 1963, p.166.

51) 「민제신문」, 1948년 12월 9일

5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294.

53) Hq.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54)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 전예원, 1994, pp.434~437.

5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7, December 20, 1948.



체기를 이용해 1949년 1월 1일 제주읍 외곽 오등리에 주둔중인 3대대를 급습,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⁵⁷⁾ 이 같은 무장대의 거센 공세를 경험한 함병선 연대장은 육·해·공군 합동작전에 의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했다.⁵⁸⁾ 이 와중에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한 제주도민의 희생은 계속됐다.

1949년 4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의 제주 방문에 이어 4월 29일 소개령이 해제되고 5월 10일에는 1년 전 무산됐던 북제주군 갑·을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실시됐다.⁵⁹⁾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빨갱이 불순분자를 숙아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4·3사건과 연루됐다 훈방되거나 석방된 도민들이 대대적으로 예비검속 돼 처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은 제주비행장, 모슬포비행장, 사라봉 등지에서 처형됐다.⁶⁰⁾ 또한 본토 각 지역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던 4·3사건 관련 수형자들이 정부군에 의해 집단 학살되기도 했다.⁶¹⁾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을 전면 개방되는데, 이는 1948년 4·3봉기 이후 6년 6개월 만에 제주도 전역이 평시 체제로 환원된 것이다. 이후 최후의 무장대원 오원군이 구좌면 송당리에서 생포된 것은 1957년 4월 2일이였다.⁶²⁾

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해방과 건군』, 국방부, 1967, p.445.

57) “Weekly Activities of PMAG,” January 4, 1948, RG 338 :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5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29. January 5, 1949.

59) 『국도신문』, 1949년 5월 15일. 『동광신문』, 1949년 5월 14일. : 1949년 5월 10일 실시된 재선거는 1년 전과 달리 무사히 진행됐다. 유권자 등록률은 갑구 96%, 을구 97%로 1년 전과 달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투표율도 갑구 97%, 을구 99%를 기록했다.

6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p.338~341.

61) 같은 글, pp.442~479.

62) 『제주신보』, 1957년 4월 3일 ; 『조선일보』, 1957년 4월 3일.



3. 역사적인 평가

1) 우익에서 바라본 4·3사건 - ‘폭동론’

4·3사건 당시 진압 세력들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력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했다.

이를 통해 군부 정권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지배 체제는 국가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로 통용되는 모든 것들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사회 통합 역시 반공주의에 의해 가능했다.⁶³⁾ 극우적 반공규율을 일상에까지 적용시켰던 군부 정권은 4·3사건에 대한 사회적 소통을 선택적으로 허용했다. 폭동 담론은 이러한 체제 속에서 지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4·3사건이 진압된 이후 강도 높게 지속됐던 반공 규율은 4·3사건에 대한 역사 인식을 ‘남로당 공산분자들에 의한 폭동’에 한정시켰다. 그 이상의 역사적 해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환경이 조성됐기에 가능했다. 4·3사건에 대한 언설을 억압으로써 ‘빨갱이 사냥’의 신성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⁶⁴⁾

제주 사회에서 폭동담론이 어떻게 구축됐는가를 설명하는 데에는 친일 협력자들의 반민족 행위에서부터⁶⁵⁾ 미군정 혹은 이승만 정권의 권위적인 반공 이데올로기⁶⁶⁾, 또는 4·3사건과정에서 만들어진 극우반공체제 등 다양한

63) 문상석, 「전쟁과 국가건설 연구 :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9, p.110.

64)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 제주4·3의 담론정치」,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p.224.

65) 4·3은 40년간 터부시되어 왔고, 그것은 권력 측이 철저하게 암흑 속에 매장시켜 왔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유지해 온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일찍이 일본의 제주의 앞잡이였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서, 그들이 해방 후 오늘까지 권력을 잡고 있으며 오늘날의 정권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 김영범,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문학과지성사, 1998.

66) 한국의 처리에 있어 미군정 시기에는 미군정의 정책에 충실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역시



설명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설명은 4·3사건을 기점으로 형성된 제주사회의 극우반공적 기본구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폭동담론은 현재까지 4·3사건의 지배 담론으로 위치하고 있다. 제주 사회에서는 4·3반공유족회와 군·경 우익단체들이 폭동 담론의 주요 집단을 형성했다.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그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담론을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시키는 구조를 지속시켜 왔던 것이다. 이는 당시의 지배 권력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정치 사회적 틀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담론 주체들이 작동시키는 ‘담론의 정치’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2) 좌익에서 바라본 4·3사건 - ‘항쟁론’

사회민주화를 위한 시도가 6월 항쟁을 정점으로 확산되면서 대항적 위치에서 기존의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 담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 군부 정군에 의해 금기시된 언어들도 제한적으로나마 소통되기에 이르렀고, 차단당했던 화두들이 조금씩 사회적 논의 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었다.

문화 일반에서는 4·3사건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생산됐으며, 민중항쟁사관에 입각한 연구 성과물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1989년 기점으로 4·3사건을 ‘항쟁’으로 인식하던 집단들이 서로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 4·3사건 연구는 반공담론 하에서는 소통될 수 없었던 항쟁의 역사를 밝히고, 그 주체를 ‘민중’으로 집중시키면서 은폐됐던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데 초

이승만 정권의 정책에 충실하였다.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은 공히 4·3을 국내치안 교란정도가 아니라 공산주의 선동에 의한 반란, 즉 정부 진복으로 보아 이를 철저히 진압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재단을 우선시하였다. - 안정애, 「4·3과 한국 정부의 역할 : 군부를 중심으로」, 2002, p.11.



점이 맞춰졌다.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미군정과 경찰의 발포를 중요시하며 민중을 항쟁 주체로 설정하고 단선·단정 반대와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투쟁의 지향점으로 분석하는 등 의도적으로 차단됐던 4·3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현실 운동의 추동력으로 가능하게 했다.

연구 성과 이외에도 제주도내 재야 단체들이 4·3사건이 발발한지 41주년이 되는 1989년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 (이하 41주기 준비위)를 발족시키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제주여민회를 비롯해서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YWCA대학부, 제주YWCA청년부, 제주교사협의회, 제주사회연구소 준비위원회, 제주 4·3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지역동아리연합회협의회 등이 주최 단체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이처럼 추모제 형식을 통한 조직적 움직임은 투쟁의 출발이자 한 양식이었다.⁶⁷⁾

41주기 준비위는 또 ‘4·3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에서 4·3사건의 진상규명, 미국의 공개사과, 연좌제의 실질적 폐지 등을 주장한다. 개발문제 등 당시 지역 현안 문제들에 미국과 집권 여당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제주 사회의 현실 모순을 타파할 수 있는 동력을 4·3사건의 항쟁 인식과 연결시켰던 것이다.

이듬해인 1990년부터는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이하 사월제 공준위)가 구성됐다.⁶⁸⁾ 저항담론으로 형성된 ‘항쟁론’이 6월 항쟁이라는 사회 민주

67) 나간채, 「문화운동 연구를 위하여」, 2004, p.19.

68) 연도별로 사월제 공준위 조직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990년에는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 4·3연구소,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10개 단체 참여했다. 1991년에는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주청년회준비위원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1992년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노래빛사월,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등 14 단체가 참여했다. 1993년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4·3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1994년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제주4·3연구소, 민주당제주시지구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3개 단체가 참여했다.



화의 영향으로 제주 사회 내부의 진보 진영을 고무시켰고, 결국 이들이 연대하여 조직화된 결과 사월제 공준위가 결성될 수 있었다.

사월제 공준위를 주축으로 한 항쟁 담론의 전개는 4·3사건 문제를 대중화하고 정치적 이슈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4·3사건을 지역사회 모순의 원류로 인식하고 진보진영이 연대하여 현실 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제주의 민주화’ 69)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됐다.

3) 중도에서 바라본 4·3사건 - ‘양민학살론’

양민학살담론은 지배적 위치의 ‘폭동론’과 저항담론으로서의 ‘항쟁론’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지양하고 양민학살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점점으로 한 일종의 ‘담론적 합의’이자 ‘타협의 산물’이었다. ‘합의’된 담론은 이전 시기의 대립과 갈등 양상을 극복하는 진전된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4·3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가능하게 했고,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해결’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 있는 담론적 기반이 됐다.⁷⁰⁾ 결과적으로 4·3사건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⁷¹⁾

이는 본격적으로 4·3사건의 해결을 국가 단위로 촉구하며 압박하는 형태로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4·3공원과 위령탑 건립 사업 지원’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4·3위령공원 부지 매입비 30억 지원’이다.⁷²⁾ ‘합동위령제’를 병행하

69) 김중민, 「4·3이후 50년」, 1999, p.342

70) 특히, 1995년과 96년은 첫 민선 도지사과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던 해로 지역사회의 4·3 담론을 주요하게 관찰할 수 있다. “대통령 공약 4·3 명예회복 언제 이뤄지나...”(『제민일보』 1995년 4월 1일자), “지사 후보 4·3 치유 토론, ‘98년까지 위령탑 건설 추진”(『제민일보』 1995년 6월 20일자), “4·3위령공원 올부터 착수, 중점추진 27건 등 공약 62건”(『제민일보』 1995년 8월 1일자), “4·3 진상규명·위령사업, 정부지원 이뤄져야”(『제민일보』 1996년 3월 25일자)

71) 박산식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제2호,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 1999.

72)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4·3사건의 치유를 위해 제주도민의 명예회복과 화합 차원의 위령탑을 건



고, ‘위령공원’을 조성하는 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반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전 시기에 국가의 해명을 요구했던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지 못했다. ‘국가 주도의 은밀한 망각의 각본’⁷³⁾으로 대표될 수 있는 담론 현상은 그 점에서 4·3사건을 인식하는 국가의 이중적 시선이다. 담론의 정치적 작용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배제된 역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보다는 가시적 성과의 ‘위령사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위령 사업들은 이 시기 지배 담론의 전략이 반영된 담론 구성물이다. 4·3특별법과 같은 성과를 도출했지만,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시점을 확보하는 데에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던 것이다.⁷⁴⁾

결국 ‘양민학살론’은 4·3사건의 명확한 진실 규명 작업 없이는 올바른 위령사업의 진행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담론이 되고 말았다.

실 하겠다”고 밝힌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은 1995년 제주도가 작성한 ‘4·3치유를 위한 위령탑 건립(안)’으로 구체화된다. - (제주 4·3연구소 편, “제주4·3치유를 위한 도민토론회 자료집”, 1995) 이 문건에는 제주 4·3을 “해방 직후인 48년 4월 3일~57년 4월 2일까지 만 9년동안 도 일원에서 무장 봉기 세력과 정부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빚어진 비극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위령탑 건립이 “4·3 위령사업을 전개, ‘용서와 화합’으로 당시 희생된 영령을 진혼하고 유족들을 위로하여 도민 갈등의 근원적 치유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문건은 또 “사업시행기간”을 “1995년부터 1998년까지”로, “공원 조성 면적”을 “10,000평”으로, “추진 주체”를 “제주도(4·3위령탑 건립추진 위원회)”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위령탑 건립 13억, 전시관 건립 2억 5천, 공원조성 12억 등 총 사업비 32억”이 산정되어 있다. 4·3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대통령 역시 1999년 제주도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4·3위령공원 부지매입비’명목의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73)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 제주4·3의 담론 정치」, p.256.

74) 1990년대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4·3의 항쟁이나 저항적 측면보다 학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4·3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일련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 및 문화적 재현의 텍스트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 주도의 범도민 위령제를 형성시켰고 제주 도민 모두를 동일한 수준의 4·3피해자로 만들어 다양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는 국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현해경,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 4·3과 5.18 문화운동 기초연구', 제주 3.3연구소, 2004, p.177.



Ⅲ. 제주 4·3사건의 극화와 작가인식

장일홍은 제주 출신 극작가 중 최초⁷⁵⁾로 4·3사건을 소재로 한 희곡을 1988년에 발표하였다. 2000년, ‘4·3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다.⁷⁶⁾ 타 문학장르에서도 앞 다투어 4·3사건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의 4·3문학은 4·3사건에 대해 ‘폭동론’이라고 정의한 사회 담론에 맞서기라도 하듯 4·3사건의 실상을 드러내는 저항문학의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회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4·3사건에 관한 서적들이 출간되고 증언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장일홍 역시 이러한 시기에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를 발표한다. 희곡은 장일홍, 강용준, 김경훈 작가만이 4·3사건에 관심을 갖고 창작해 나갔기 때문에 발표된 작품이 많지 않다.⁷⁷⁾ 이러한 와중에 발표된 장일홍의 희곡은 4·3사건 소재 희곡 창작에 불씨를 지폈다.

1. 비극적 가족의 운명

비록 민주화운동 이후 4·3사건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고는 하나 작가로서 4·3사건에 대해 다루기에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⁷⁸⁾ 물론

75) 함세덕의 「산사람들」이 1949-1950에 발표된 것을 제외하면 최초로 4·3 소재 희곡을 썼다.

76) 소설에서는 허윤석의 「해녀」(1950), 황순원 「비바리」(1956), 오영수 「후일담」(1960), 과학송 「집행인」(1969), 박화성 「휴화산」(1973), 오성찬 「하얀 달빛」(1971), 「잃어버린 고향」(1976) 등에서 4·3을 언급하였고 본격적으로 4·3을 소재로 다룬 것은 현기영의 「순이 삼촌」(1978)이다.

77) 실제로 1988년부터 약 5년간 발표된 작품 수만 열 편으로 장일홍이 세 작품, 강용준이 네 작품, 김경훈이 세 작품이다.

78) 현기영은 「순이삼촌」을 발표한 후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25일간 구류되었다. :



여기서의 부담감은 작가가 고문이나 형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 출신 작가로서 4·3사건 소재 희곡을 다룬다는 사명으로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사실 전달과 중립적인 역사인식에 의한 극화의 문제에 놓였을 때를 말한다.

이 시기에 쓰인 시, 소설 등 여타 문학도 증언과 기억의 틀 안에서 4·3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부르짖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4·3문학으로 하여금 “기존의 4·3담론을 해체하고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는” 79)역할을 했다. 현기영이 「순이 삼촌」에서 ‘식개집 담론’ 80)으로 4·3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했듯이 장일홍 역시 한 ‘가정’으로 4·3사건을 시작한다.

4·3사건의 흔적들은 가정의 파괴와 가족구성원들의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와 「강신무」이다.

1) 가족의 비극과 성적 장애,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

불완전한 한 개인이 완전한 개인으로 가기까지는 그 개인을 이루고 있는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간이 집단 속에서 생을 영위하는 이상, 가정과 사회의 교육을 통해서 페르조나를 형성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 81) 이기 때문에 집단 내의 변화 속에서 한 개인의 성격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현기영, 「한라산의 레퀴엠」, 『나의 문학이야기』, 문학동네, 2001, p.277.

79) 김신영, 「현기영 소설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p.47.

80) 식개집은 제주어로 체사집이라는 뜻이며 ‘식개집 담론’은 살아남은 자들이 제삿날에 모여 죽은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4·3에 대한 기억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 김동윤,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방식」,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p.111.

81)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0, p85.



4·3사건이 40여 년이 지난 1988년에 쓰인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는 한 가정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어 쓰여졌다. 이 작품에는 4·3사건을 겪은 가족구성원들이 이상 현상을 나타내거나 성적 장애자⁸²⁾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적 장애 행동이 가족과 개인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호숫가 언덕위에 자리 잡은 별장을 배경으로 하는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시끄러운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호숫가다. 기섭은 이러한 고요한 집을 떠나 시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식인이다. 극은 기섭이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인애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시작된다. 인애는 역사를 겪어보지 않은 평범한 대학생이다. 역사를 직접 겪지도 않았고, 달리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집안을 마주한다. 인애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기섭으로부터 도망친다. 그러나 기섭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 기태와 누나 희옥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애가 오고 나서 그 비밀은 벗겨진다.

기태 :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4·3 사태가 일어나자 미군정 당국은 군경을 파견해서 게릴라를 토벌케 하는 한편, 이북에서 월남한 청년들로 구성된 서북청년단원들을 보내어 치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버진 이들 단원의 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서청 단원들은 경찰도 두려워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아버진…… '정방폭포의 백정'이란 악명을 떨치면서 섬 사람들에게겐 공포의 대상이었지.

82) 여기서의 장애는 정상적이지 못한 성행위를 일컫는다.



기섭 : 기분 나쁘게 하필이면 별명이 백정이라니…….

기태 : 아버지의 처형 방법이 악랄했기 때문이야. 아버진 잡혀온 게릴라를 정방폭포 위에서 심문하고 입을 열지 않았을 땐 여자이면 유방을, 남자이면 남근을 자르고 폭포 아래로 밀어뜨려 죽였어.

인애 : 어땀! 끔찍해라. 어쩌면 그럴 수가…….

기태 : 아버지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 중학교에 동경 유학까지 마친 미모의 여교사가 있었지. 아버진 그녀에게 욕정을 느껴 구애했으나 거절당했어. 그녀에겐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의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이야. 교활하고 음험한 아버진 약혼자를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을 뿐 아니라 그녀의 부친을 협박하고 회유하기 시작했지. 끝내 부친이 뜻을 굽히지 않자 아버진…… 부하를 시켜 여교사 집의 헛간에 남로당 지령문서와 인민유격대가 살포한 뼈라를 은닉시켰어. 결국 그녀의 부친은 빨갱이와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피를 토하며 숨져갔지….

기섭 : 그만! 그만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그 여교사가 바로 어머니죠, 맞죠?

기태 :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기섭 : 가슴이 떨려요!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란 게 수치스럽군요.

기태 : 진정하고 내 말을 마저 들어.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 그래도 완강히 여교사가 버티자, 어느 날 밤 월장을 해서 말처럼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강간을 했지. 여교사는 그때 이미 약혼자의 아이를 가졌고 임신 3개월의 몸이었다구. 그 다음에 그녀의 모친과 동생들을 몰살하겠다고 위협한 거야. 그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에 동의하고 말았어. 그리고 결혼 후 5개월만에 여아를 조산하게 되었지.⁸³⁾



기섭의 어머니 순오는 기섭의 아버지 학규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한다. 기섭의 아버지 학규는 과거 서북청년단원으로 활동하며 4·3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 ‘더러운 백정’이었다. 교사였던 순오는 학규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가 빨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약혼자를 잃었다. 그리고 학규의 협박 때문에 억지 결혼을 하고 당시 약혼했던 남자의 아이인 희옥을 조산하게 된다. 희옥은 조산 후유증 때문에 장애를 앓게 된다. 그리고 학규의 아기인 기태를 갖게 되면서 증오의 대상자인 학규와 삼십년의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 베르그송은 “순수 기억은 체험에 바탕을 둔, ‘형상기억의 형태’로 남아 생의 모든 사건을 보존한다.”⁸⁴⁾고 했다. 희옥의 그러한 기억은 한 인간에 대한 증오를 낳았다. 그래서 몇 십 년을 함께 산 남편 학규를 쉽게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감금해 놓고 고문에 가까운 생을 살게 한다. 그녀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 온 이유는 ‘오로지 복수의 일념으로 한 평생을 살아온’ 것이다. 이렇듯 ‘모계사회의 유물’ 이자 배다른 아이를 임신했던 순오가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학규를 감금했다는 사실로도 부부 사이에 커다란 성적 장애의 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어머니 순오뿐만이 아니다. 학규와 순오 사이에서 태어난 기태도 성적장애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포천택 : 아가씨가 자정이 넘어서 이층 도련님 방에 드나드는 것 봤어요. 얼마 전부턴 큰 도련님이 아가씨를 두들겨 패기도 했구요. 임신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기섭 : 세상에, 이럴 수가……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포천택 : 아뇨. 그 성질에 알았단 봐요. 큰 변고가 날 것 같아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죠.

83) 『붉은 섬』, pp.180~182.

84) 김진성, 『베르그송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p.99.



기섭 : 당치도 않아요. 이게 어디 그냥 어물어물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예요? 어머니한테 우선 얘기해야죠.

포천택 :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 던지시 알렸어요. 아가씨가 이상하다고 말예요. 그랬더니……

기섭 : 그랬더니?

포천택 : 사내 곁에 가보지도 않은 년이 어찌구 하시면서 픽 웃고 말더군요⁸⁵⁾

잘못된 연애로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는 기태는 순오와 학규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누이 희옥이 어머니 순오가 학규와 약혼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기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애정으로 이루어진 일반 부부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어머니 순오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학규와의 혼인을 택했으나 기태의 말처럼 ‘불쾌한 섹스’를 지속해왔던 것이다. 학규는 불감증인 순오를 흥분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았다. 폭행을 통해 순오를 자신의 것으로 굴복시키려 했던 학규의 뜻과는 다르게 순오는 소리 한 마디 없이 기도하듯 매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학규의 변태적 성행위의 잔해물은 기태와 희옥의 근친상간으로 극대화 된 것이다. 그것에 대해 기태는 일말의 양심적 거리낌도 느끼지 못한다.

희옥이 호수에서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섭이 기태의 행동에 대해 묻는다. 기태는 “처녀로 늙어가는 그 년이 가련해서 안아준 것 뿐이야.”라며 엉뚱한 변명을 한다. 기섭은 기태에게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나를 범한 파렴치한, 이 개같은 인간!”이라고 몰아세운다. 순오는 자신의 큰 아들인 기태를 ‘기생충’이라고 한다. 기태는 희옥에게 매질을 가하며 흥분하기도

85) 『붉은 섬』, p.191.



하는데, 그 배경에는 4·3사건이 있었다. 4·3사건의 피해자, 가해자가 한 가족이 되어 돌연변이가 된 것이다. 이처럼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에서 묘사되는 서북청년단원 학규가 희옥의 친부를 죽이고 순오를 범한 만행은 실제로 4·3사건 당시에 종종 자행되었던 일들이다. 4·3사건에 자행되었던 일들에 대한 부정은 결국 기태가 극 속에서 추구하던 행동에 대한 부정과도 같다. 기태는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를 뺨 과거 연인을 과실치사 혐의로 죽였다. 기태의 ‘피’는 학규의 ‘피’이기 때문이다.

이 집안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은 기섭이다. 그러나 기섭 역시 걸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⁸⁶⁾를 앓고 있었다.

인애 : 아버지가 이 집에 들어온 후부터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군요.

기섭 :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어머니 아버질 사갈시 했으니까. 나 역시 아버질 미워했지. 아니, 나의 경우는 매우 특이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기에 갖는 심리적 특성인 외디프스 콤플렉스가 나에게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다구. 그건 아마도 어린 시절의 불행한 기억 때문일 거야. 아버진 무자비하게 어머니를 까닭도 없이 썰 때가 많았거든. 그때의 매맞는 어머니 모습은 정말 가관이야. 눈물 한 방울, 소리 한 마디 없이 어머니 이를 악물고 기도하듯 매를 받아들였다구. 그럴수록 아버지의 광포함은 가열해지기 마련이었고…… 첫 휴가 때 집으로 돌아온 난 처음엔 아버지의 업보라고 생각했었지. 만약에 불의와 방탕으로 날을 지새운 탕자들신이 응징하지 않는다면 누가 경건과 절제의 미덕을 실천하겠어? 하지만 얼마가 지난 뒤, 난 아버지에게 물경한 연민을 느끼

86) 그리스 신화 오이디푸스에서 딴 말로서 S.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에서 쓴 용어이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에피카스테)의 아들인데 숙명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의 왕이 되었다. 어머니인 줄 모르고 결혼한 그들은 그 사실을 알자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눈을 뺐다.



에 되었지. 철저히 부숴지고 완전하게 무력해진 사람을 어떻게 더 이상 증오할 수 있겠어?⁸⁷⁾

아버지는 “아이의 정신적 탄생과 성장을 이끌어 주고 미래를 축복해 주는 존재”⁸⁸⁾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아이는 비정상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커 갈 수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때릴 때도 “눈물 한 방울, 소리 한 마디 없이” 매를 맞았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듯 매를 받아들였다”. 오이디푸스인 기태, 기섭보다도 이오카스테인 순오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작가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강인한 제주여성의 표현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광폭하게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기섭은 아버지를 응징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존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역시 강화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존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약화된다. 중풍으로 쓰러진 학규에 연민의 정을 느끼는 기섭은 철저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다. 즉, 기섭 역시 근친이라는 성적 장애를 청년기 때까지 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인애는 기섭에게 있어서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한 인애를 내쫓는 기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학규와 동일시⁸⁹⁾ 되어 가고 있던 것이다. 학규와의 동일시는 기태와의 동일시와도 같다. 결혼을 하고자 데려온 인애를 부정해버리는 기섭 역시 기태처럼 자신이 해오던 행동을 부정해 버린 것이다. 결국 학규 혹은 순오의 피를 받은 세 명 모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

87) 『붉은 섬』, pp.175~176.

88) 루이지 조야, 이은정 역, 『아버지란 무엇인가』, 르네상스, 2009, p.479.

89) 프로이트에 의하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경향이 남근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잠재기에는 억압된다고 한다. ‘아버지처럼 자유롭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다’는 원망은 ‘아버지와 같이 되고 싶다’는 선망으로 변하여 부친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초자아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두산백과)



가는 인간인 것이다.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는 결국 4·3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잔해들이 낳은 결과물이다. 흰 잠옷차림의 희옥은 강가에 빠져 죽고, 기태는 자결한다. 인애는 떠났다. 학규의 지속되는 절규는 희옥과 기태의 죽음에도 싸늘한 시선을 유지하는 순오와 대비된다. 이러한 장면의 대치 속에 기섭의 눈물 어린 호소로 극은 마무리 된다. 즉 이 작품은 4·3사건으로 인해 가족의 비극적 결말과 개인의 성적 장애가 역사적 폭력과 긴밀한 관계 속에 발생한 것임을 고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의 화해와 샤머니즘, 「강신무」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에는 4·3사건의 잔해는 있었지만 제주도는 없었다. 4·3사건은 제주도라는 특수한 지역⁹⁰⁾ 특성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4·3사건을 다룰 때 반드시 제주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연호의 「강신무」에 대한 평을 보자.

1989년 12월 초순의 어느날, 때마침 한국일보사의 신춘문에 희곡부문 선발을 맡았던 나는 처음으로 장일홍씨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루하게 응모작들을 읽어나가던 중 장씨의 <강신무>를 접어들게 되었는데, 단숨에 다 읽고나서 눈이 번쩍 뜨이는 즐거움과 함께 마음 든든함을 느꼈다. 마치 제주도에서 갓 실어온 싱그러운 굴감의 맛을 품기듯, 신선하고 깔끔한 솜씨로 빚어낸 희곡이었다.⁹¹⁾

90) 본 논문 P.10 참조.

91) 장일홍, 『붉은 섬』, 문학과 비평, 1991, p.280.



199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기도 한 「강신무」는 서연호의 평처럼 제주가 그대로 담겨진 수작이다.

제주도는 탐라⁹²⁾라는 독자적인 국가였다. 고·양·부, 3성의 개벽설화는 탐라국의 독자적인 촌락사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촌락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무속신앙에서 나온다. 『동국여지승람』에서 “풍속이 음사를 숭상해 산림·내·연못·언덕·나무와 돌에 모두 신의 제사를 베푼다”⁹³⁾는 내용으로 과거 제주인들의 삶이 샤머니즘에 기반함을 알 수 있다. 장일홍의 경우도 작품 곳곳에 제주와 무속신앙이 들어있다. 특히 그것이 전면에서 드러난 것이 「강신무」다.

제주의 강한 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엉으로 엮은 초가집과 돌담, 그리고 제주 고유의 정낭⁹⁴⁾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배경이 제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벽에 걸려있는 ‘북·장고·신칼·요령’은 이곳이 ‘심방’⁹⁵⁾의 거쳐임을 짐작케 한다.

에미는 심방을 세습해야 하는 업보를 지닌 집안에서 오대 째 심방 일을 하고 있다. 이 집안은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영등굿⁹⁶⁾을 치를 업보를 타고

92) 제주(濟州)의 옛 이름.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에 고(高)·양(梁)·부(夫) 3성(姓)의 개벽 설화가 전하는데, 이로 보면 처음에는 세 씨족이 촌락사회를 이루었다가 그 후 탐라소국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임. 삼국 시대 이래 독립국으로 존재하다가 고려 중기에 군현으로 편입되었는데, 조선 초기까지 탐라의 지배층은 성주(星主)·왕자(王子) 등의 작호를 받음. 지리적으로 가까운 백제와 문주왕 2년(476)에 통교하였고, 신라 문무왕 2년(662)에 신라의 속국이 되었음. 고려 태조 21년(938)에 고려의 속국이 되었다가 숙종 10년(1105)에 군(郡)이 설치되면서 비로소 군현체제에 편입되었고, 의종 7년(1153)에는 현(縣)으로 격하되었음. 조선 태종 4년(1404)에 성주는 좌도지관(左都知管), 왕자는 우도지관(右都知管)으로 개칭되었다가 세종 27년(1445)에 폐지되었음. (출처 : 두산백과)

93) 1486년 성종17년에 완성된 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서거정(徐居正) 등이 엮은 지리지.

94) 제주에서 집 울타리의 대문이 놓일 자리에 가로놓는 나무 기둥이다. 나무막대 서너개가 가로로 걸쳐져 있다.

95) 무당의 제주어.

96)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의 『해상일사(海上逸史)』 연등절조(燃燈節條)와 담수계(淡水契)의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영등굿의 유래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영등굿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당나라 상인의 배가 제주에서 난파되었는데 죽은 시신이 네 토막으로 흩어져 두개골은 어등개에 떠오르고, 손과 발은 고내, 애월, 명월의 포구에 떠올랐다. 그래서 해마다 정월 그믐에 온갖 바람이 서해로부터 불어오면, 이는 영등신이 오시는 것이라 하여 어촌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 들에서 굿을 하였다. 굿은 밤에 시작하여 낮까지 이어진다.



났다.

에미 : 폭도들이나 병정들이나 매한가지였어. 그 자들은 개구리나 메뚜기 잡듯이 양민들을 잡아 죽였단다. 그때 이웃 마을에선 이런 일도 있었지. 병정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사람들을 죄다 모이게 해 놓고선 느닷없이 총을 마구 쏘 갈렸어. 병정들이 가버린 후, 모질게 명이 긴 남정네 하나가 우리 마을로 기어와 숨겨주기를 간청했는데... (망설이다가) 누군가가 밀고를 하는 바람에 그 남정네 찌프차 콩지에 매달린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끌려갔지. 차가 멎었을 땐 온몸이 걸레 조각처럼 갈가리 찢어져서 숨져 있었다더라.

탄실 : 세상에 어디 그럴 수가...!

에미 : (점점 가슴이 더워 온다) 병정들이 이웃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불알 달린 사람은 모두 다섯밖에 남지 않았어. 그때 죽은 사람들의 피는 시내를 넘치게 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물은 강을 이루었다. 개처럼 죽어간 망자들의 원혼은 구천을 헤매다 돌아와 아직도 이 땅의 어드메를 떠돌고 있겠지... 애야, 원혼들의 피맺힌 한을 누가 풀어주겠냐? 오직 심방들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단다.

탄실 : (도리질하며) 난 절대로 심방은 되지 않을래요.⁹⁷⁾

에미 역시 심방이 되어야 하는 업보를 거부했지만 4·3사건으로 인해 부친과 남편을 잃고, 의심 많은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한다. 망나니 세 번째 남편마저 불타 죽은 후, 결국 에미는 업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탄실은 업보를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이어지는 업보가 에미의 과오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탄실은 자신이 에미와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97) 장일홍, 같은 책, p.11.



서 나온 아이임을 이미 알고 있다. 탄실은 정해진 업보인 심방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 에미가 나가는 곳판에는 절대 따라 나가지 않았다. 무업을 잊지 않을 시 가랑이를 지저버리겠다는 에미의 겁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죽이라고 큰 소리 친다. 에미가 자신을 묶고 얼굴에 백지를 겹쳐 발라도 절대 심방이 되지 않겠다고 버틴다.

종교적 의미로 샤머니즘은 우리 민족 고유의 것도 아니고 역사의 중심적 사상이 된 적도 없다. 근대화의 물결에 따른 미신타파 풍조로 몰린 샤머니즘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민족의 종교적 구실을 함으로써 이 민족의 정신생활 속에 파고들어 골수에 배일만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⁹⁸⁾ 특히 샤머니즘의 종합적 표현인 ‘굿’은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가 깊게 깃들여져 있다.

장일홍 역시 샤머니즘을 가장 날카롭게 미신으로 몰아붙인 기독교를 극속에 등장시키고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며 샤머니즘의 긍정성을 극대화한다.

준오 : 체... 그까짓 사탕발림에 감지덕지하지 마. 우리 사장은 명색이 교회장료야. 한 달에 한 번씩 공장으로 목사를 초청해 합동예배가 뭔가를 드릴 때, 설교제목은 언제나 「도둑질 하지 말라」 「계명을 지켜라」 따위지. 그건 공원들이 회사 물건을 훔쳐내 밖으로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한 정신 교육에 다름 아니라구. (적개심이 활활 타올라) 개새끼들! 험뵈고 굶주린 노동자들에게겐 비인간적인 몸수색에다 생계비에 훨씬 미달되는 저임금을 주면서, 교회당 신축헌금 5천만원, 무슨 무슨 성금 1억원 기탁... 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바친다, 이거야!

탄실 : 며칠전에 야간일 할 때 쪽지를 받았어요.

98) 문상희, 『한국의 샤머니즘』, 왜관:분도출판사, 1982, p.120.



준오 : 쪽지?

탄실 : 파업에 찬성하면 이름을 써 넣으라는 설명이 있더군요.

준오 : 그래서?

탄실 :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준오 : 어째서?

탄실 : 두렵고 떨렸기 때문이죠.⁹⁹⁾

탄실이 연정을 품고 있는 준오는 탄실과 일하던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지서를 받고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을 단행하려 한다. 탄실을 파업에 끌어들이려던 준오는 탄실의 거절로 인해 탄실이 밀고자라 생각하고 자살을 한다. 기독교에 대한 강한 부정과 이어지는 준오의 죽음은 샤머니즘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장치가 된다.

이 작품은 심방을 시키려는 에미와 심방이 되지 않으려 하는 탄실의 밀고 당기는 관계 속에서 몇 번의 상황 역전이 이뤄지는데 그 중심에는 모두 샤머니즘과 꿈이 있다. 특히 에미의 꿈으로 시작해서 두 모녀의 황홀경으로 끝나는 구성은 굿과 현실의 절묘한 경계에 작품을 올려놓은 작가의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영등굿을 하기 전날이면 언제나 꿈을 꾸는 에미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탄실은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내 탄실의 귀양풀이 꿈으로 인해 역전된다. 기회를 잡은 에미는 탄실에게 심방이 되겠다는 다짐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혼절하여 잠들고만 탄실에게 다시 주도권을 뺏긴다. 혼절하였지만 하품을 하며 일어나는 탄실이의 행동은 꿈이라는 장치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관계의 역전이 반복되는 와중에 결국 탄실은 에미가 굿판으로 떠난 뒤 환청으로 들려오는 굿소리에 몸을 맡겨 춤을 추어 신내림을 받는다. 이러한 탄실을 본 에미는 사방팔방에 절을 하곤 탄실

99) 『붉은 섬』, pp.22~23.



과 어우러져 춤을 추는데 이로써 두 모녀의 갈등은 비로소 해결이 된다. 특히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인 탄실이 신내림을 받는 묘사는 그 집안 심방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심방으로서의 탄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 먼 함성처럼 굿소리가 들려오자 탄실, 귀를 틀어막지만 질탕한 굿소리는 더욱 커지고 그에 따라 온몸을 뒤틀며 뒹군다.

일순, 감전된 것처럼 사지가 뻗뻗해지더니 용트림하듯 서서히 몸을 일으켜 비상하려는 새처럼 하늘을 향해 두팔을 뻗을 때 한 줄기 신비한 섬광이 그녀의 육신을 관통하면 그 얼굴에 희열과 쾌기가 용솨음친다. 돌연, 미친 듯이 마루로 내달아 송낙을 쓰고 쾌자를 걸치고 요령과 신칼을 들어 마당으로 뛰어내리면서 굿장단에 맞춰 너홀너홀 춤추기 시작한다.

.....중략

쾌자 자락을 휘날리는 탄실의 춤사위가 신명을 더해 갈 때 보따리를 든 에미 등장. 에미, 어리둥절 소스라쳐 입을 딱 벌린 채 그 자리에 붙박혀 있다가 절규하듯 외친다.

에미 : 우와, 신 내렸다! 신 내렸어! 우리 애기한테 신 내렸어-!

징소리 바라소리 낭자하다. 에미, 두 손 비비며 사방 팔방에다 대고 절하다가 탄실이와 한데 어우러져 춤춘다. 이윽고 해일갈던 장단이 잔잔해지면 모녀는 황홀경에서 깨어난다.¹⁰⁰⁾

탄실이 심방이 됨으로써 진정으로 화해한 가족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가슴 속에 묻고 다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며 살아간다. 이러한 삶의 에너지

100) 『붉은 섬』, pp.30~31.



의 중심에는 제주 고유의 ‘영등굿’과 ‘귀향풀이’라는 샤머니즘이 있다. 죽음 후의 삶, 그 삶이라도 편하게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주 전통의 무속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작품 속에는 제주의 전통문화가 녹아있으면서 4·3사건을 민초의 입장에서 객관화하였고, 나아가 그 문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한다. 에미라는, 과거 4·3사건의 아픔을 지닌 인물과 탄실이라는 현재의 아픔을 지닌 인물, 두 인물이 마지막 장면에 펼치는 곳은 가족의 화해이며, 과거와 현재의 화해인 것이다. 비록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수준의 화해이긴 하나 4·3사건의 잔해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 구성원 간의 화해는 4·3사건의 해결에 좀 더 가까운 결과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2. 폭동론에 대한 저항의식

장일홍은 본격적으로 4·3사건을 다루고자 생각하고 장장 6개월 간 자료 수집을 한다.¹⁰¹⁾ 장일홍은 4·3사건을 전면으로 다룰 최초의 희곡임을 자각하고 약 6개월 여의 창작 기간¹⁰²⁾을 공들이며 작품을 완성해 낸다.

「붉은 섬」은 문예지에 발표되지 못하고 희곡집에 실린 작품이다. 사실상 「붉은 섬」이 발표된 것은 1991년 발간한 희곡집 『붉은 섬』인데, 『붉은 섬』이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상을 받았을 때, 장일홍은 아래와 같이 회고한다.

“아무 문예지도 못 싣고 그다음 해 첫 희곡집이 나올 때 신게 돼요. 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상 받게 됐다. 깜짝 놀랐

101) 장일홍 작가 개인 인터뷰. 2012년 11월 13일. 오후 2시. 신제주로타리 커피숍.

102) 장일홍 작가 개인 인터뷰. (위와 동일)



죠. 깜짝 놀랐는데 문예진흥원에서 희곡집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붉은 섬’ 희곡에 대해서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비중이 컸죠. 정확하게 시간은 안 적었지만 스케일이 당시로서는 컸어요. 2시간 이상 되고 등장인물만 해도 50여명 되는 극이에요.”¹⁰³⁾

이 시기의 대다수의 문학 작품이 40여년간 형성되어 왔던 ‘폭동론’에 반대하며 ‘항쟁론’에 작가의식을 두고 저항적 작품을 발표했는데 「붉은 섬」 역시 그러하다.

「붉은 섬」은 작가 개인의 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토대로 창작된 작품이다. 4·3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사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4·3은 항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작가의 입장에서 정부(우익) 자료들을 신빙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무장대의 규모를 예로 들 수 있다. 4·3무장봉기가 일어나고 350여 명의 무장대가 하루 동안 경찰지서 12개를 습격하였고 피해인명은 경찰 사망자 4명, 부상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은 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는 사망2명 생포 1명¹⁰⁴⁾으로 공식 집계되어 있다. 좌익 쪽 자료인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¹⁰⁵⁾에는 무장대를 ‘3,000명’이라고 기술해 놓았는데 이는 5·10선거 저지 실패 등의 이유로 합심하지 못하는 남로당원의 선전·선동을 위해 과장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 통계가 「붉은 섬」에 수록된 4·3사건 일지와 가장 비슷한 통계다.

장일홍은 「붉은 섬」 서두에 4·3사건 일지를 직접 써놓고 작품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작품을 읽으면서 4·3사건의 진행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제 선홀리 사건의 흐름과 희곡의 장면 진행을 거의 동일하게

103) 장일홍 작가 개인 인터뷰. (위와 동일)

10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173.

105) 김봉현·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문우사, 1963.



설정함으로 ‘항쟁’으로 4·3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

상진 : (선동적으로)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뛰고 있습니까? 혈관 속엔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고동치는 가슴, 더운 피가 흐르고 있다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야 합니다. 적들의 총칼을 향하여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디밀어야 합니다. 행방불명으로 처리돼 제삿밥조차 찾아먹지 못하는 수 많은 억울한 원혼들을 위해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청년 1 : (신음처럼) 싸워야지.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일어서서 싸우다 죽어야지.

청년 2 : 강아지들도 그들을 보면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데...우리가 뿔으로 그들과 싸워. 맨주먹으로?

청년 3 : 무기에는 무기로 맞서야지. 손에 죽창이라도 들고 싸우자구.

청년 4 : 놈들은 토끼몰이 식으로 이 섬의 청년들을 한라산으로 내몰고 있어. 수평선으로 간혀 있는 섬에서 우린 어디로 피신해야 하나?

청년 5 : 모든 게 분명해 졌군. 우린 산으로 들어가야 해.¹⁰⁶⁾

실제 역사적으로 청년들이 한라산에 내몰리던 때는 1948년 5월 이후인데 희곡에서는 ‘입산’이라는 장면으로 상황을 설정하여 입산 행위를 ‘항쟁’의 행위로 정당화 한다. 이러한 정당화는 작품 곳곳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4·3 무장봉기 장면이다. 태삼에 대한 묘사는 물론이거니와 무장대를 해방군으로 정당화하고, 인민들의 피해가 가는 일은 일체 허용치 않겠다고 하는 태삼의 발언은 태삼을 영웅화 하고 ‘항쟁’으로의 무장봉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 무장봉기 피해자가 민간인이 가장 많다는 것은 위 설정이 작가가 4·3사건을 ‘항쟁’으로 더욱 부각시

106) 『붉은 섬』, p.219.



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서장에서 서청원에게 고문당하는 동호도 ‘항쟁’으로의 4·3사건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서북청년회 제주도본부가 정식으로 결성된 것은 1947년 11월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1947년 3월을 기점으로 서청원이 동호를 고문하게 설정하였다. 이는 4·3무장봉기가 악랄한 서북청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항쟁론’으로의 4·3무장봉기의 정당화에 이어 장일홍은 1987년까지 4·3사건의 거대 담론이었던 ‘폭동론’에 맞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을 작품 곳곳에 배치한다. 서북청년회와 민전 사이에서 희생당한 동호가 그러했고, 기택이 동생인 영택에게 죽는 장면이 그러하다. 기택은 레닌의 책에 이상을 품고 입산을 한다. 특히 작가는 기택이 게릴라와 주민들이 우익인사를 처벌할 때 단순히 망을 보게 하여 이념에 휩쓸려 입산했다기보다는 이상을 꿈꾼 양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한 기택이 가족을 그리워하던 찰나에 총을 맞는 순간과 영택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양민학살’에 주안을 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민학살’은 이어지는 집단학살 장면으로 인해 배가된다.

장교 : 통비분자를 대라구!

수정 : (부들부들 떨며) 우, 우리 마을엔... 그,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장교 : (사병1에게) 꼬마를 데려가!

사병1 : 냇! (민수를 끌고 가려 하자 수정이 달려들어 사병 1의 팔을 문다) 아앗! 놈, 놈라! (필사적으로 물어 뜯는 수정) 이 쌍년 이- (대검으로 수정의 배를 푹 찌른다.)

민수 : 엄마! 엄마-! (미친 듯 발광하자 사병2가 짹 붙든다.)

복녀 : 에미야! 에미야! (앞으로 나서는 그녀의 면상을 사병3이 개머리판으로 후려친다.)¹⁰⁷⁾



제주도 4·3사건국회진상보고서에 따르면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통계로 남성 9,637명이 여성 2,574명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⁸⁾ 비율로 남성의 78.7%가, 여성의 21%가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⁹⁾ 그러나 이 통계는 사망자에 근거한 통계이므로 실제 4·3사건 당시 피해를 본 제주 여성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성들은 직접적인 학살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에 의해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들에 시달렸으며 가족을 위해 강제 결혼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남편, 자식, 부모형제를 잃은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4·3사건 이후 집을 다시 세우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했다.¹¹⁰⁾ 제주여성의 강인함은 「강신무」와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에서도 확인되었다. 집단학살 장면에서 죽음을 맞는 수정은 4·3사건을 천재지변이라 생각하고 굳게 버텨오던 힘없는 양민의 좌절을 상징하는 것이다.

「붉은 섬」에도 제주사회를 지탱하던 샤머니즘의 붕괴를 보여주며 제주 사회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선흘리의 ‘향약’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성철의 아버지는 동호의 아버지인 김 주사의 동백나무 숲 주변의 잡목 몇 그루를 베어서 뿔감으로 쓰러다, 김 주사네 집안사람에게 들켜 불기 짝을 맞고 죽고 만다. 본래 동백나무 숲은 향약에 의거하여 마을 사람 모두의 것으로 동호의 아버지 김 주사가 향약을 위반하고 법률로써 독차지 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엷히고설킨 관계 속에 향약은 이미 기능을 상실하였다. 성철은 향약을 핑계로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만 향약에 의해 멍석말이 처형을 당해 죽는다. 성철모는 아들을 잃고 향약의 상징인 할망당 팽나무에 목을

107) 『붉은 섬』, pp.239~240.

108) 1994년 2월 7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피해신고실’을 통해 접수된 인원으로 총 12,243명이다.

109)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369.

110) 이정숙,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4.



매 자살한다. 할망당에 목을 맨 성칠모의 죽음은 앞으로 닥칠 마을의 비극을 짐작하게 한다. 입산과정에서 상진을 비롯한 청년들은 직접 죄대를 밟고 올라섬으로써 향약의 가르침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좌익 계릴라가 우익인사들을 할망당 팽나무에서 처형함으로써 향약의 무의미함이 더욱 보여진다.

이장 : (할망당 앞으로 다가서며) 뭐야? 옥황상제의 따님? 앓아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는 신령한 조상님이라구! 쟤장맛을, 설촌된 이래 칠백년 동안 선흘리를 지켜줬어? 행, 그래서 이 마을이 썩밭이 됐구만! (맥없이) 나 때문에... 내가 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죄없는 사람들이 죽었어. 지하에 가면 무슨 낮으로 그들을 대한다 말인가. 할망당이 있기에 우리 마을만은 지켜 주리라고 믿었던만...(증오심에 차서) 이 순간부터 할망군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 아니야! 당신이 보살피 준다던 사람도 집도 다 죽고 불태워지고 말았어. 당신에겐 이제 재난을 물리칠 신통력도 영험도 없어! 하얗은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아. 어리석고 아둔한 우리들이 속았던 거야. 우리들은 돌덩이 앞에서 열심히 손을 비비고 공들여 장만한 음식을 바쳤지. 제기랄! 우린 속았어. 속은 만큼 양값음을 해줄 거야. 이 망할 놈의 할망구! (도끼를 높이 쳐들어 연거푸 내리찍는다. 돌항로가 쪼개지고 재단이 박살난다. 점점 광포해진 그는 지전과 물색도 갈가리 찢는다) 신? 신이라구! 신이라면 나타나 봐! 어서 나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불탄 집도 다시 세워봐! 이 빌어먹을 할망구야-!

돌연, 지축을 뒤흔드는 천둥소리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진다. 이장이 멍청하여 하늘을 우러볼 때 우르르 쿵! 벼락 떨어지는 소리.¹¹¹⁾

111) 『붉은 섬』, pp.251~252.



할망당의 붕괴는 곧 이 마을을 지탱해주던 사머니즘의 붕괴를 뜻한다. 제주의 양민들은 4·3사건 초토화 기간에 일어난 인명학살에 대해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순간에 터를 잃고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다. 무당 안에 빙의 된 할망의 출현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 간 제주도 양민들에게 ‘조상신이 노하셨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라도 있었으면 하는 답답한 심정에서 그려낸 것일 것이다.

육체와 정신 모두 무너져버린 제주양민들의 비극성은 4·3사건을 규정하던 ‘폭동론’을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항쟁론’에 힘을 실어준다.

‘항쟁론’의 중심에 있던 두 인물, 태삼과 종덕은 실제 인물인 김달삼과 이덕구¹¹²⁾를 모델로 하여 창작된 인물이다.¹¹³⁾

셋별 오름 정상에 남은 종덕과 홍란은 그들의 ‘항쟁’이 끝나 감을 인지한다. 여기서 홍란은 당시 짧은 패기로 무장봉기를 이끌었던 상진과 태삼을 비롯한 모든 좌익 수뇌부를 겨냥하고 있다. 홍란은 진정한 공산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장봉기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말한다. 실제로 신춘회의에 참석한 이삼룡은 “우리가 정세 파악을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채 김달삼의 바람에 휩쓸린 것이다.”¹¹⁴⁾라고 증언했고, 남로당 제주도지부도 4·3무장봉기는 중앙당에 보고되지 않은 독단적인 행위로, 일부 강경세력의 판단에 의해 일어난 사건인 것이라고 입장 표명을 했다.¹¹⁵⁾ 홍란은 종덕이 죽음을 결심

112) 제주 4·3사건 때 제주도 무장대 총책.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출신으로 1948년 8월 21일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김달삼(金達三)이 참석하러 가게 되자 이덕구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과 제주도 인민유격대 사령관 직책을 이어받았다. 이후 이덕구가 지휘하는 유격대 주력 부대는 토벌대를 포위해 기습 공격하고 제주읍을 급습해 도청을 방화하고 지서를 습격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토벌대의 대공세 이후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무장 대원도 100여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결국 1949년 6월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 최후를 맞았고 효수된 시신은 경찰서 앞 관덕정 광장의 진뗃대에 매달려졌다. (『발굴 한국현대사인물』 2 (한겨레신문사, 1992))

113) 장일홍 작가 전화 인터뷰. 2013년 3월 4일. 오전 11시.

11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158.

11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p.162~165. 참조.



하고 자수를 권유하자 죽어도 종덕의 품에서 죽겠다며 자살을 한다. 홍란이 자결하는 충소리에 종덕은 아들인 민수와 재회하게 된다. 가족을 뒤로한 채 민족주의자의 삶을 선택한 종덕은 민수에게 죽음으로써 제주를 지켜 다시 역사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며 “장두의 길”을 가르쳐준다.

종덕이 처형당하는 과정인 “예수놀이”에서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다시 나타나는데, 샤머니즘을 상징하는 팽나무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형태로 죽는 종덕은 “민족을 사랑한 죄”로 초월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종덕을 영웅시하기 충분한 대목이다.

종덕 : 오해하진 마.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살아 남아서 우리의 투쟁을 기록하고 후세에 남겨야 해. 역사는 기록의 산물이니까. 만일 우리의 투쟁이 역사에 남지 못한다면 항쟁은 한갓 물거품에 지나지 않아.

.....후략¹¹⁶⁾

장일홍은 항쟁의 역사로 4·3사건을 인식하여 「붉은 섬」을 통해 전면으로 4·3사건을 다뤄 4·3사건이 ‘4·3폭동’이라는 정의에 저항했다. 그것을 위해 이념과 담론에 편협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실주의 양식을 택했다.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4·3사건의 전체 진행과정을 다루며 비극적 사실주의로 풀어냈다. 또한 4·3사건을 직접 겪진 못한 작가가 직접 4·3사건을 재현하여 작가의 관점으로 마주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116) 『붉은 섬』, pp.257~258.



3. 허무(虛無)와 유토피아

장일홍의 「붉은 섬」은 사실을 바탕으로 장일홍의 ‘표현적 관점’이 이루어 창작된 작품이다. ‘표현적 관점’이 들어간 대표적인 일례로 함세덕의 「산사람들」을 들 수 있다. 함세덕의 「산사람들」¹¹⁷⁾은 4·3사건의 전개를 좌익의 입장에서 전면으로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49년 2월 8일 평양 국립극장에서 공연이 되었는데 작품에 출연했던 육철식¹¹⁸⁾의 『강동정치학원』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막에 들어가서 토벌경찰과 치열한 전투 끝에 포위되어 육박전을 감행하며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유격대원의 시체를 가운데 놓고 산상에서 장례식을 올리는 장면에서는 김일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모든 관객들은 숙연한 침묵 속에 이곳저곳에서 훌쩍이는 모습들이 보였다. 5막 7장 <산사람들> 연극은 마지막 장면에서 「제주도 빨치산의 노래」 합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징소리와 함께 막을 내리고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¹¹⁹⁾

「산사람들」은 월북 작가 함세덕이 적화통일의 선동을 목적으로 사실이 왜곡되어 창작된 부분이 많다. 「산사람들」에 ‘표현적 관점’이 들어간 이유는 창작과정에서 김달삼 등의 증언이 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117) 「산사람들」은 함세덕 월북 후 집필 한 작품이다. 실제로 장일홍은 작품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장일홍 개인 인터뷰, 2012년 11월 21일, 오후4시, 신제주 소재 커피숍.)

118) 육철식은 193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출생하여 청원공립초등학교 3학년이던 1948년 10월 22일 월북하였다. 1948년 12월부터 1949년 3월까지 강동정치학원생이였으며 1949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평양연락소 근무를 거쳐 1950년 6월 26일 전쟁에 투입되어 인민군 총참모부 경찰부와 조선로동당 전라남도당부 보도과에서 활동하던 중 1952년 2월 백운산 지구에서 포로가 되었다. 포로수용소 등지에서 생활하던 도중 1952년 10월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문관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에 다시 육군에 입대하여 만기제대를 하였다. (김동윤, 「함세덕 희곡 <산사람들>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5집, p102.)

119) 육철식, 『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 1998, p.116.



4·3사건은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 2000년 특별법과, 2012년 개정된 4·3특별법이 있지만 아직도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4·3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장일홍 작가 본인이 직접 증언을 녹취하고 수많은 자료를 참고하여 나름의 선흘리 사건을 정의하여 「붉은 섬」을 창작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짧은 시간만으로 수백 피해자의 모든 증언과 정황을 조사하고 좌익·우익 모두가 서로 인정할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 근거로 「붉은 섬」에서의 역사적 사실들이 실제 역사적 기록과 다른 부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혹, 사건을 전면으로 다루더라도 사실주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붉은 섬」을 창작 해 나갔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줄여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전작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와 「강신무」에서는 소재상 가족 드라마이고 피해자 순오의 ‘관점’과 기섭의 ‘관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표현적 관점’에서는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다.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주의라는 방식으로 「붉은 섬」을 풀어나갔다. 이는 4·3사건을 재현하면서 작가 본인이 전면에서 의식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일홍은 1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 동안 “소음의 일부가 되어버린”¹²⁰⁾ 자신과 거리를 두며 또 하나의 4·3사건 소재 희곡을 창작해 낸다.

1) 좌파 이데올로기의 몰락과 허무주의 - 「하모니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주와 4·3사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 ‘4·3특별법’을 제정되었고 사회담론

120) 『붉은 섬』, 「작가의 말」에서 인용.



도 ‘폭동론’ 보다는 ‘양민학살론’에 무게가 실렸다. 4·3사건을 알리고자 하는 이유로 ‘폭동론’에 맞서 저항문학을 집필해 오던 문학인들의 활동이 뜸해지고, 4·3사건을 다루는 문학인들은 4·3사건을 객관화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희곡에서는 김경훈을 제외한 나머지 희곡작가들이 몇 년 간 4·3사건을 다루지 않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난다.¹²¹⁾

장일홍은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하모니카」를 2000년에 썼다. 그러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지적 할 부분이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1,2장이 현재이고 3장에서는 과거 장면이 회상되다가 4장에서는 갑자기 분신이 나온다. 그리고 5,6,7장에선 다시 현재를 다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무대 지시문에 설정 되지 않은 후막 스크린이 과거의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갑자기 나온다거나, <고향의 봄>이라는 곡이 작품의 시작에 연주되고 있음에도 과거로 넘어가는 매개체로 활용되는 점은 통일감도 결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하모니카」는 4·3사건의 문제를 가족의 단위에서 사회의 단위로 확장시켜 해결했다는 점에서 전작에 비해 4·3사건 문제만큼은 완성도가 높은 희곡이다.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는 4·3사건 당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가족이 되어 가족 간의 비극으로 극이 끝났고, 「강신무」는 4·3사건 당시 피해자와 그녀의 잔해가 샴머니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화해하며 가족의 화해로 극이 끝났다. 「붉은 섬」은 사실주의 형식으로 4·3사건과 직접 마주하여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전면으로 부각시키나,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 그에 반해 「하모니카」는 한 개인과 그 가정이 결국 이데올로기 때문에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해결되지 않은 가족의 갈등을 통해 4·3사건의 문제에 직면하고 그에 따라 해결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극중 팔십 세인 복레는, 25년 동안 장기 복역을 마치고 환갑의 나이로 출

121) 김경훈만은 놀이패 한라산의 정기공연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창작물을 발표한다. 부록 참조.



소하여 1996년, 지금까지 20년을 지하실에서 지냈다. 1947년 입산하여 4년여의 좌익투쟁의 결과, 45년을 갇혀 지내게 된 것이다. 김일성대학을 수료하고 개풍군 여맹위원장까지 지낸 신지식인의 처참한 몰락이다. 「하모니카」는 4년 여의 좌익투쟁이 복레는 물론이고 복레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살이 파헤쳐 낸다. 먼저 경희는 좌익 혁명군이던 복레의 영향을 받아 학생운동을 하고 그 일로 수감생활을 했다. 복레의 과거 전력으로 순옥의 남편은 실직하고, 민호는 육군사관학교에 떨어져 택시를 운전하며 산다. 복레의 좌익투쟁이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복레 : 어느 시대전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박해를 당했어.

순옥 : 신념 좋아 하시네. 자손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복레 : 부끄럽다니? 난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어.

순옥 : 떳떳해? 사위 잡아먹은 것도 부족해서 앞날이 창창한 외손자 장래 망치고 외손녀 감옥 보내고…… 지긋지긋해서 빨갱이 근처에는 가기도 싫어.

복레 : 나 같은 조상 만난 것도 다 그 아이들 운명이야.

순옥 : 운명이라고? 이런 뻔뻔스런 늙은이 같으니라고. 아예 우리 가족을 통째로 삶아 먹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늙은이 잡아 가지 않고.

복레 : 허면 석방 탄원서는 왜 냈누? 탄원서가 아니었다면 전향하지도 않았어.

순옥 : 인생이 불쌍해서 그랬지. 세상에 남은 오직 하나 혈육인데, 탄원서 한 장 안 내고 차디찬 감옥에서 빠드러져 죽으면 한이 될 거 같아서.

복레 : (별안간 벽력같이) 천정이 무너진다! 무너져! 무너져 내린다!
(계단 아래로 몸을 던지자 데그르르 구른다)¹²²⁾



복레는 경희와 민호를 대할 때와는 다르게 순옥 앞에서는 자신의 전력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데, 이는 자신의 존재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과거를 뒤돌아 볼 때만 난 살아 있고 행복해 질 수 있어.” 라는 복레는 지금 비록 좌익투쟁 결과가 허무할지라도 그 당시만 해도 신념에 의해 정당하게 투쟁해왔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러나 복레는 좌익투쟁에 함께 했던 영만이 상습적으로 순옥을 강간한 것을 알고도 오직 좌익투쟁의 성공 때문에 묵과했었다. 순옥 앞에서 자신의 전력을 부정하게 되면 순옥에게 상처를 남긴 과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즉 과거 좌익투쟁의 정당성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레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경희와의 대화에서 특히 가족들을 피해로 몰아간 자신의 좌익투쟁 전력을 부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전작 「붉은 섬」에서 상징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붉은 섬」에서 “예수놀이” 에도 곳곳하게 민족주의자로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던 종덕과는 달리 「하모니카」에서는 “예수놀이” 에 빠져 예수의 순교의 길에 동화된 복레를 보여준다. 학생운동가인 경희가, 예수가 혁명가임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종덕과 가까운 사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복레의 과거 좌익투쟁을 이상시 하는 경희의 태도에서 좌익의 성향이 짙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종덕의 죽음에 쓰였던 노래 <고향의 봄> 이 「붉은 섬」에서는 영웅의 비극성을 극대화시켰다면 「하모니카」에서는 좌익투쟁의 비참한 말로를 재현하는 음악 장치로 쓰인다는 점은 작가의 의식 변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좌익투쟁의 허망함은 함께 좌익투쟁하다 죽은 기대와의 만남에서 극대화된다.

122) 「하모니카」, 『이어도로 간 비바리』, p.113.



복레 : 대관절 사상이 무어나?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도구일 뿐이야.

기태 : 그걸 이제야 깨달았수?

복레 : 이제야 알았지.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태 : 숨 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려.

복레 : 숟가락 놓을 때가 됐네.

기태 : 누님, 이 노래 기억하우? (낮고 침울하게 노래한다)

.....중략

기태 : 누님, 인생이란 한 마당 꿈에 지나지 않아요. 비 온 뒤 정적과 같은 꿈.

복레 : 나이가 들면서 점점 확연히 깨달았어. 인생은 거대한 꿈이고 인간은 그 꿈에 잠시 등장하는 광대에 지나지 않다는 걸.

기태 : 허나, 꿈인 줄 알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못 하는게 인간이죠. 욕심을 버리면 세상이 극락인데, 어때요, 우리가 가야 할 머나먼 길을 찾았수?

복레 : 나침반도 없이 사막을 건너 왔는데 큰 산이 앞을 가로 막고 있구나.

기태 : 사태 때 일어난 일은 다 잊어 버려요.

복레 : 잊으라고? 과거는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땅이야. 승리와 패배,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땅. 허지만 과거를 뒤돌아 볼 때 만 난 살아 있고 행복해 질 수 있어. 기억의 불씨가 꺼질 때 죽음이 날 찾아오겠지.

기태 : 누님은 아직도 헛된 꿈을 좇는 소녀티를 벗지 못 한 것 같수.

복레 : 죽음은 그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는 축복의 순간이 될 거야.¹²³⁾

123) 『이어도로 간 비바리』, pp.126~127.



니체는 짜라투스드라를 내세워 “국가란 모든 냉혹한 괴물들 중에서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그것은 또한 냉혹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은 그 입으로부터 살살 새어나온다. ‘나, 곧 국가가 민족이다’ 라는 거짓말이 그것은 거짓말이다!”¹²⁴⁾고 말했다. 복레는 좌익투쟁을 했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니 모든 게 허망한 것이다.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보람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똑같으며, 모든 것이 헛되다.”¹²⁵⁾라는 니체의 말처럼 복레는 허망하게 40여 년을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다. 오직 죽음만이 복레를 허망한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복레는 25년간의 복역생활과 20여년의 지하실 생활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얻게 된다. 그 중 대표되는 것이 우주기차여행이다. 우주기차여행은 죽음을 상징한다. 기차는 총 세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기차가 오기 전 복레는 종이로 십장생을 접고 있다. 이는 아직 삶에 대한 욕망이 복레에게 남아 있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기차는 좌익투쟁으로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위해주고 배려하는 민호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세 번째 기차는 민호가 살인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순오의 근친상간 문제가 밝혀진 후,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복레가 “오늘은 꼭 은하수로 떠나는 기차가 올 거야.”라며 찾아온다. 세 번째 기차가 온 후 복레는 자살을 하게 된다.

복레 : 나도 데려가 줘요.

분신 : 갈 수 없어.

복레 : 나는 내 의지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어요.

분신 : 자유의지라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세
계라는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내던져진 존재라구.

복레 : (손을 떨며) 너무 외로워요. 석방된 후 꼬박 20년 동안 사람들

124) 프리드리히 니체, 최승자 역, 『짜라투스드라는 이렇게 말했다』, 청하, 1989, pp.88-91.

125) 프리드리히 니체, 위의 책, p.323.



과 단절된 채 살아 왔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 날 무시하고 외면
해요. 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분신 : 그걸 예상 못 하고 전향했나? 북에서 받지 못한 영웅 칭호를 남
에서 줄 거라고 생각했어?

복레 : 천만에! 난 영웅을 원치 않아요. 다만 평범하고 온화한 가정을
원했어요.¹²⁶⁾

좌파 이데올로기로 전향하라는 분신과의 만남은 좌·우 사이에서 이념이
나 사상보다 한 가정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다. 위에서도 거론했듯이 복레
는 영만이 상습적으로 순옥을 강간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좌익투쟁
의 성공을 위해 그것을 묵과한 것이다. 근친상간은 좌·우의 이념대립 속에
묵인되어 버린다. 복레는 순옥의 친아버인 수복을 버리고 영만과 좌익투쟁을
위해 결혼한다. 순옥은 민호를 낳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경희를 낳
는다.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질 만큼 우익 쪽의 성향을 지닌
민호는 학생운동권 활동을 하며 좌익 쪽 성향에 치우친 경희와 근친상간을
한다. 민호는 복레의 좌파 이력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후부터
인생이 꼬였다. 경희는 복레의 좌파 이력을 닮고 싶어 하며 학생운동을 한
다. 결국 민호와 경희의 근친상간은 필연적이며, 그것은 복레의 좌파 이데올
로기가 낳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복레는 가족에게 닥친 해결될 수 없
는 현실문제에서 도피하고자 자살한다. 복레의 자살은 이데올로기를 지향하
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하모니카」는 좌익투쟁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복레와 그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장일홍은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와 「강신무」에서
도 가족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 갈등의 원인에 비록 4·3사건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가족 내부의 갈등과 그 해결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

126) 『이어도로 간 비바리』, pp.131~132.



나 「하모니카」는 근원적인 갈등의 원인에 4·3사건이 있다. 왜냐하면 4·3사건 당시 복례의 좌익투쟁 활동이 순옥, 민호, 경희의 사회활동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4·3사건은 「붉은 섬」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부 청년 중심의 극좌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무장봉기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뽑힌다. 「붉은 섬」은 극좌파의 실존인물 이덕구를, 민족주의자인 ‘종덕’으로 설정하여 좌익투쟁의 정당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반면 「하모니카」에서는 좌파 이데올로기의 허망함에 대해 강하게 드러낸다. 그 허망함의 대표 인물이 복례인 것이다. 결국 과거 좌파 이데올로기의 유산인 복례의 죽음은 이데올로기의 몰락과 좌익투쟁의 허무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모니카」에서는 4·3사건의 무장대 출신 가족이 현재에 받는 문제를 꺼내들어 사회문제로 대두시켰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몰락과 좌익투쟁의 비극적 결과를 도피하기만 할 뿐 4·3사건의 문제에는 좀 더 진취적이었으나 문제 해결에 대한 마땅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4·3사건의 담론이 ‘양민학살’까지의 진취적 발전은 이루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3사건 해결에 조금 더 나아간 작품이 「이어도로 간 비바리」다.

2) 현재에 잔존하는 4·3사건과 유토피아 - 「이어도로 간 비바리」

「이어도로 간 비바리」는 장일홍의 대표작으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이다.

「이어도로 간 비바리」는 2003년 전통연희 창작희곡 공모 최우수상을 받고 다음해 이운택에 의해 2004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립극



장 하늘극장¹²⁷⁾에서 공연되었다. 공연에 대한 평을 살펴보자.

초혼은 서구극의 구조를 해체시키며 작가의 언어와 장면은 곳의 사설이 되고 노래와 어울리고 장단을 타면서 연극과 곳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기존에 선보였던 곳의 연극화와는 차별되는 공연 양식적 특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¹²⁸⁾

제주도 근·현대 수난의 역사를 제주도 지역의 독특한 전통연희 양식인 무혼곳으로 풀어내는 창작극. ‘오구-죽음의 형식’을 통해 한국 전통연희양식인 곳이 한국 연극의 원형적 자산임을 증명했던 이운택 감독과 연희단거리패가 15년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곳판 연극이다.¹²⁹⁾

“그동안 서구연극과는 다른 한국연극의 독자적 양식을 탐색해 온 연희단 거리패가 선보이는 초혼은 실종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곳으로 풀어내는 연극”¹³⁰⁾

제주가 아닌 곳에서 가장 성공한 공연인 「이어도로 간 비바리」는 전작에서 다루지 않았던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 또한 성산일출봉과 성산포바다를 담아낸 무대는 멀리 우도(소섬)까지 배경으로 삼아 제주의 비경을 뽐낸다.

장일홍의 4·3사건을 소재로 한 희곡 중 유일하게 제주어로 창작된 이 작품은 제주의 전통 곳의 모습까지 전면에서 드러내며 시작한다.¹³¹⁾ 요왕맞이

127) 지금의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128) 『제주일보』, 2004년 10월 11일.

129) 『문화일보』, 2004년 10월 2일.

130) 『경향신문』, 2004년 11월 25일자, 현기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인터뷰.

131) 「강신무」에서도 ‘에미’가 심방으로서 곳판에 나가지만 무대 위에 드러나진 않는다. ‘귀양풀이’를 하는 ‘탄실’의 신내림 모습은 무대 위에 드러나는데 제주 전통 곳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볼 수 없다.



곳은 큰곳의 한 재차로 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익사한 영혼을 건져내어 저승으로 고이 보내거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빌기 위하여 하기도 한다.

요왕맞이 곳에 진설할 제물을 들고 ‘에미’가 등장하고 요왕맞이 곳을 할 준비가 끝날 때 즈음 오조리 잠녀¹³²⁾들이 난입하여 한바탕 다툼이 일어난다. 성산읍내에서 운영되는 양식장내의 이권싸움은 오조리와 성산리를 포함하는 성산읍이라는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상징한다. 제주의 마을 공동체 존속을 위해 이루어졌던 ‘향약’의 문화가 현재에 이르러 많이 퇴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자본주의와 맞물려 있다.

에미 : 응, 왔나? (오조리 잠녀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오조리 잠녀다, 우리 넉치 양식장에서 흘러내린 폐수 때문에 오조리 양식장의 소라, 전복이 죄다 죽었던 험신계.

잠녀 2 : (기세 좋게 나선다) 아니, 어떤 년이 마른 날에 벼락 맞을 소릴 험수파?

잠녀 가 : (버럭) 어떤 년이라니! 방귀 편 놈이 성낸다고, 되레 큰 소리는.

.....중략

잠녀 1 : (.....전략) 집집마다 은행 빚을 얻어 투자한 건디 양식장이 잘못되면 우리 마을 사람들, 동냥 깡통을 차야 협주 마썸.

(마을 사람들, 삼삼오오 굶판으로 모여든다.)¹³³⁾

한바탕 다툼이 끝나고 드디어 요왕맞이 곳이 시작된다. 이번 굶판은 4·3

132) ‘해녀’의 제주어

133) 『이어도로 간 비바리』, pp.163~165.



사건 때 성산포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자 이루어진 곳이다. 요왕맞이 곳은 순서대로 ‘초감제’¹³⁴⁾부터 시작하는데, 이러한 ‘굿판’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계속해서 등장한다.

‘심방’의 신명나는 춤 한판이 벌어지고 나면 장막이 닫히고 무대는 에미의 집으로 바뀐다. ‘에미’가 잠녀회에서 주최한 ‘굿판’의 제주(祭主)노릇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찰나, 남자1,2가 들어와 ‘에미’가 소유한 땅을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서울사람에게 팔라고 한다. 그러나 ‘에미’는 냉정하게 거절한다. ‘에미’의 거절에 남자1,2는 도리어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요하며 화를 낸다. 첫 장면에서 오조리 잠녀들이 자신들의 양식장의 경제적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찾아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남자1,2는 땅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에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오조리 잠녀들은 성산읍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도 다른 마을 사람이지만 남자1,2는 같은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의 골은 더 깊다. 마을 사람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에미’는 잊혀져있던 사건을 꺼낸다.

에미 : 모두들 잊고 있구나예. 난 너무도 생생히 그 때를 기억 하고 있습니다. 무자년 난리 때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너븐드르에 모아 놓고 청년 다섯을 골라 다섯 개의 구덩이를 파게 해십주. 그 청년들이 먹구슬나무에 인공기를 매달고 뼈라를 뿌린 통비분자라는 거라마썸. 마을의 유지였던 백발이 허연 한 창희, 송 대수 두 어른이 나서 십주. 이 청년들을 살려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겠노라고…… 잠시 후에 요란한 총성이 울리더니 청년 다섯 뿐 아니라 두 어른도 피를 내뿜고 쓰러집디다. 구덩이 두 개가 더 파졌고 별집이 된 일곱 구의 시신이 그 자리에 묻혀 십주. 바로 그 땅이 우리 밭이라 마썸.¹³⁵⁾

134) 굿의 첫머리에서 신을 청해 들이는 제차.

135) 『이어도로 간 비바리』, pp.171~172.



몇 십년간의 세월이 지나고 성산리 사람들 모두가 잊고 살던 4·3사건의 기억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외부세력에 의해 다시 꺼내지게 된 것이다. 4·3사건이 잊어선 안 될 사건이라는 귀중한 깨우침은 남자1,2로 하여금 기억을 망각하게 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한다.

성산리 이장인 최필구는 마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한 골프장 건설을, 청년들을 구워삶아 여론을 무마시킨 장본인으로 이번 호텔 건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필구에 대한 환멸은 마을의 수뇌에 대한 환멸로 4·3사건의 갈등 구조가 현재에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된다.

4·3사건의 갈등 구조가 현재에도 현존하는 이유는 4·3사건에 대한 해결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에미’의 땅에 묻힌 녀과 성산리 앞바다에 빠져 죽은 녀의 위로만이 사건 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하여 피맺힌 영혼을 저승길로 보내기 위한 요왕맛이 굿이 시작된다. ‘굿판’을 통해 과거 녀를 위로하여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작품은 다시금 현재의 해결되지 못한 갈등으로 돌아온다.

‘에미’의 아들인 ‘석중’은 골프장 현장사무소 건물 방화죄로 전국에 지명수배 되어 형사를 피해 숨어 다닌다. 형사는 ‘석중’의 여동생 ‘순임’에게 찾아와 자수를 권하고 떠난다. ‘석중’은 1차적으로 환경의 보존을 위해 방화를 저질렀지만 그 의미는 생존의 문제로 확장된다.

석중 : (.....전략) 골프장 농약이 지하로 침투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 뿐입니까? 골프장 보트로 사용한답시고 산을 깎아내리니까 밭에 토사가 마구 흘러내려 농사까지 망치게 됐대구요. 먹는 물까지 오염시켜서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만 합니까?¹³⁶⁾

136) 『이어도로 간 비바리』, p.186.



골프장 건설의 갈등은 외지와 제주의 갈등을 다시 야기하는 계기인데, 이러한 갈등요소는 ‘순임’의 서울생활에서 더욱 깊어진다. ‘순임’은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잠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서울로 공장살이를 하러 갔다. 가보기 전 서울은 분명 잠녀가 되어야 하는 ‘순임’에게 도피처였으나, 가본 후의 서울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결국 다시 돌아온 제주에서 ‘순임’은 잠녀조차 될 수 없었다.

‘순임’의 체념에서 결국 좁혀질 수 없음이 느껴지는 외지와의 갈등은 결국 외지와 연결다리를 하는 최필구와의 갈등으로 넘어간다.

최필구의 아버지인 최영감은 ‘할미’를 찾아와 다시 외지인들이 호텔을 짓기 위해 땅을 팔아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할미’는 단칼에 거절하는데 ‘할미’의 말 속에서 최필구와 ‘에미’의 집안이 악연임을 알 수 있다.

할미 : (.....전략) 당신 집안은 대대로 우리 집안을 괴롭히기만 했주.

내가 그 내력을 닦아보카?

(.....중략)

할미 : 말 한마디로 천량 빛을 갚는다고..... 짐승 같은 짓을 해 놓고도

당신들이 언제 진심으로 사과해 본적 이서?¹³⁷⁾

‘할미’의 말에서 짐작 할 수 있는 둘의 악연은 ‘에미’가 ‘석중’을 찾아간 유치장에서 자세한 내막이 공개된다.

‘석중’의 할아버지인 ‘철민’은 일제시대에 잠녀들을 가르쳤던 성산 보통학교 교사이자 야학당 선생님이다. ‘철민’은 일제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위해 우리의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다. ‘철민’은 사회주의 청년단들의 모임인 제주청년동맹¹³⁸⁾의 비밀조직인 혁우동맹에서 활동하였고 잠녀들의 교육

137) 『이어도로 간 비바리』, p.184.



을 통해 제주해녀항일운동¹³⁹⁾을 이끈 장본인이다. ‘철민’은 그의 서당 동료인 ‘최기봉’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악연이 광복 후 친일세력을 척결하던 중 ‘철민’의 아들인 ‘용수’에게 ‘최기봉’을 처단할 결정권이 주어진다. ‘용수’는 ‘최기봉’을 죽이지는 않고 추방하되 마을사람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기어서 도망치라고 요구한다. ‘최기봉’은 마을사람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짖으며 도망가고 그런 아버지의 비참히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필구’가 용수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되는 것이다. 다시 시간이 바뀌어 ‘필구’는 4·3사건 당시 무장대로 활동했던 ‘용수’를 밀고하였고 그에 따라 붙잡힌 ‘용수’는 이념과 사상으로 활동하던 무장대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전향(轉向)을 택하고 자신의 사령관이던 이혁진의 사살에 일조한다. 그러나 ‘용수’는 6·25 이후 예비검속에 걸려 부산 형무소에 다시 갇히게 된다. 5·16이 나자 특사로 풀려나왔지만 폐병을 얻고, 얼마 되지 않아 피를 토하고 죽고 만다.

이렇게 밝혀진 내막은 두 집안이 역사적 평가에 의해 극명하게 갈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음을 보여준다.

작품은 막바지로 가지만, 성산리 잠녀와 오조리 잠녀와의 갈등, ‘에미’와 ‘이장’과의 호텔 부지 갈등, ‘석중’과 골프장 간의 갈등 등 단 하나의 갈등도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4·3사건 때 성산포바다에 수장된 냇에 대한 위로만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이기에 다시 작품은 요왕맞이 굿으로 돌아간다.

4·3사건 때 죽은 냇을 모두 건져 올린 이번 ‘굿관’은 이전과는 다른 기대를 품게 한다. 먼저 ‘이장’의 등장이 그 기대를 증폭시킨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장’이 오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했지만 나타난 ‘이장’

138) 1928년 4월 제주청년연합회 후속으로 결성된 사회주의 청년 단체.

139) 1932년 1월 극렬하게 불타오른 해녀 항쟁은 3개월 동안 제주 동부 지역에서 연인원 1만 7,000명의 해녀가 참가한 국내 최대의 여성 집단의 항일 투쟁이며 최대의 어민 봉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은 ‘에미’에게 사과를 한다. ‘이장’이 ‘에미’에게 사과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딸 ‘미연’의 자살시도 때문이다. ‘미연’과 ‘석중’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장’이 ‘석중’을 밀고한 것을 알고 ‘미연’이 약을 먹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호텔 부지의 땅 때문이다. ‘에미’가 땅을 팔지 않으니 직접 ‘에미’를 설득하고자 온 것이다. 그러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이장’의 태도는 도리어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키우고 만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의 다툼은 도저히 갈등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커지고 만다.

이때 등장하는 오조리 잠녀들로 인해 갈등 하나가 해결된다. 오조리 양식장에서 죽은 소라, 전북이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 때문이라는 것이다. 골프장은 이내 골프장 주인인 ‘화성그룹’의 도산으로 사용중단 된다. 화성그룹은 호텔을 짓기 위해 최필구를 통해 너븐드르에 땅을 사고 있었는데 그것 역시 자연스럽게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외지인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끝이 나는 듯하다. 그리고 ‘잠녀1’이 들고 온 신문에 실린 ‘철민’의 국가유공자 소식은 일제시대, 4·3사건 기간, 그리고 이후의 연좌제로 인해 고통 받던 ‘철민’과 ‘용수’에 대한 정당함을 보여준 것이고 그로 하여금 골프장에 불을 지른 ‘석중’의 행동 역시 정당화 되는 것이다. ‘석중’의 50주년 기념 8·15 특사 석방도 당연히 됐던 결과다. 이렇게 최씨·강씨 두 집안의 갈등만 제외하고 모든 갈등이 해결 될 즈음 ‘수남’이 ‘순임’의 신발을 들고 와 ‘순임’이 자살을 했음을 알린다.

‘순임’은 외지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고 제주에 내려왔으나 외지에 의해 너무도 변해버린 제주가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다. 최씨 집안이 흥하면 강씨 집안이 망하고, 강씨 집안이 흥하면 최씨 집안이 망하는, 하나는 웃고 하나는 우는, 지금의 제주가 그렇기 때문이다. 들춰내면 서로 아픈 과거인데 들춰내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순임’은 모



든 걸 감추고 ‘수남’ 과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걸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사느니 차라리 보이지도 않는 허무한 ‘유토피아’ 를 선택한 것이다. 죽어서야 비로소 찾아가는 땅. 설움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땅, 이어도에서. 이러한 ‘순임’ 의 의지는 제장의 단골들에 의해 전해진다.

.....전략

귀신들, 고맙다는 듯이 사방팔방에 대고 넙죽넙죽 절하다가 석중과 미연을 마당으로 끌어내어 서로 손 잡고 춤추게 만든다. 두 사람의 춤을 말리려는 에미와 그걸 방해하려는 귀신들 사이에 한참 실랑이가 벌어지는가 싶더니 슬며시 등장한 이장을 끌어내어 에미와 양손 붙잡고 춤추게 한다.

에미, 처음엔 한사코 거부하다가 할머니까지 나와서 지팡일 내던지고 최영감과 함께 신명나게 춤추자 마지못해 이장의 손길을 받아 들인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너홀너홀 한데 어우러질 때 빗소리와 굿거리 장단이 고조되며 막이 내린다.¹⁴⁰⁾

죽음을 통해 ‘이어도’ 라는 유토피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순임’ 의 죽음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4·3사건을 자각시켜준다. 이는 결코 참된 화해·상생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허무한 현실일 뿐이다.

140) 『이어도로 간 비바리』, p.216.



4. 화해와 상생

제주도민들은 ‘제주4·3사건은 공산폭동’이라는 국가담론으로 40여 년간 양민학살의 기억이 망각되기를 강요받았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이처럼 기억매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배권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집단기억을 창출하거나 강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기억정책(Erinnerungspolitik)과 망각정치(Vergessenpolitik)라는 용어로 정의한다.¹⁴¹⁾ 기억정책에 대항하는 반대기억은 푸코가 제기한 대항기억과 맞닿는데, 푸코는 니체를 전거로 삼아 우리에게 기억된 역사란 대부분 지배권력의 담론이 구성한 승리자의 역사임을 강조하며¹⁴²⁾, 대항기억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일어난 진상구명 운동이 망각된 도민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주안을 둔 것과 같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양민학살’이라는 좌·우 양측이 합의 한 4·3사건 담론으로 인해 자유로운 언급과 이념논쟁이 이루어지자 문학인들은 적어도 4·3사건에 관해서는 소강상태에 이른다. 특히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평화기념관 및 평화공원 조성 등 실질적인 정부차원에서의 보상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4·3사건은 조금씩 제주도민들에게서 꺼내기 싫은 상처로 잠잠해져갔다. 「불멸의 영혼」은 2008년에, 잊혀져가는 4·3사건에 대한 경각심에서 쓰인 작품이다.

「불멸의 영혼」과 비교연구 할 수 있는 작품은 단연 「붉은 섬」이다.

“최초로 쓴 4·3 희곡이다. 그렇게 하고 가장 오랜 기간에 쓴 공들이 작품이다. 그것이 많이 공연됐으면. 특히 상업극단에서 공연하기는 어려우니까 국립극단, 그런 큰 극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앞으로가 중요

141)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옮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p17.

142) 김영목, 「기억과 망각 사이의 역사 드라마와 과거 구성」, 최문규 외, 위의 책, pp.197-198.



한데 지금 우리가 21세기 초반에서 통일시대를 앞두고 저런 작품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상생이니 화해니 얘기할 수 있지, 저런 작품이 외면 받으면 외면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대로 공연된 적이 없잖아요. 만일 남북간의 연극을 교류한다 그럴 경우에도 북한에서도 새롭게 볼 수 있고요. 언젠가는 그런데서 공연이 됐으면 하죠.”¹⁴³⁾

장일홍이 「붉은 섬」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4·3의 거대담론이던 ‘폭동론’에 저항한, 기록극으로써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기록극은 2차대전 전후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의 역사적 기록 문서를 소재로 하고, 그 소재 내용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고 다만 언어 형식으로 문학화를 시도한 현대극 양식인데, 보통의 기록극이 비미학적인데 반해 장일홍의 「붉은 섬」이나 「불멸의 영혼」은 미학적으로도 잘 다듬어져 있다.

「붉은 섬」을 집필할 당시에 부족한 자료와 ‘폭동론’에 저항하기 위해 ‘항쟁론’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갔다면, 「불멸의 영혼」은 ‘4·3특별법’ 이후 정의된 4·3사건 자료와 ‘양민학살’이라는 합의된 담론에서 「붉은 섬」보다는 기록극으로써는 좋은 조건에 쓰인 작품이다.

「불멸의 영혼」은 김익렬 연대장의 유고집을 토대로 픽션을 덧붙여 창작된 작품이다. 김달삼과 김준(김익렬)의 4·28평화협상에서부터 김달삼 사살까지의 4·3사건 일련의 과정과 1990년 그것을 밝히려는 김준과 탐라일보 기자, 그것을 막으려는 자유조국 수호회의 갈등 구조가 얽혀 전개된다.

김준은 장창국의 4·3사건 왜곡에 ‘역사의 증인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하고 「4·3의 진실」이라는 회고록을 쓴다. 이 회고록은 탐라일보에 전해졌고 김준을 취재하러 온 조기자는 ‘4·28 평화협상’에 대해 묻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달삼이 말하는 무장봉기의 의의다.

143) 장일홍 작가 개인 인터뷰. 2012년 11월 21일 오후 4시. 신제주로타리 커피숍.



이덕구 :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슈? 자고 나면 경찰이 나 서북청년단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끌고가니까, 자위권을 발동하여 산으로 올라온 거 아니우파?

김달삼 : (회중시계를 꺼내놓고) 자, 얘기를 정식으로 합시다. (김준에게) 당신은 미군정하의 조선인 군인인데 나와의 교섭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약속 이행 권한이 있습니까?

김준 : 나는 미 군정장관의 지시에 따라 왔어요. 그러므로 군정장관 던 소장의 권한을 대표하며, 여기서의 나의 결정은 군정장관의 결정으로 보면 될 거요.

김달삼 : 본인도 제주도 도민의거자의 대표로서 전권을 위임받았으니 회답이 되겠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요. (노트의 메모를 보며 열변을 토한다) 우리나라가 민족자주독립을 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일제하의 민족반역자인 경찰과 일제의 고관을 지낸 자들이 자기들의 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 미제국주의의 주구가 되어 해방된 조국의 제주도에서도 압정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은 무고한 도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살인·강간·고문치사 등을 일삼고 있소이다.

……중략

김달삼 : (핏대를 세우며) 연대장은 정의감이 강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당신도 악질경찰처럼 우리 의거를 공산주의 소행으로 덮어씌우려는 거요!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회담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소이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¹⁴⁴⁾

144) 「불멸의 영혼」, 『내 생애 단 한번의 사랑』, pp.15~16.



김달삼은 4·3무장봉기를 정당화 하면서 공산주의자가 아닌 민족주의자로서 무장대를 옹호한다. 그러나 김달삼은 남로당 내부에서도 극진좌파세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¹⁴⁵⁾ 장일홍이 김달삼을 민족주의자로 재설정 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록극은 기록이 중심이 되는 사실(Fact)과 극이 중심이 되는 허구(Fiction)가 합쳐진 것이다. 즉 팩션(Faction)이 되는 것인데, 팩션은 애초에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즉, 팩션은 한편으로는 믿을 만한 역사적 기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¹⁴⁶⁾ 즉, 김달삼을 민족주의자로 재설정함으로써 극적인 스토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김준과 김달삼이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의 교류는 그의 아내로 하여금 김준을 찾아가는 극적 당위성을 부여한다. 김달삼의 아내인 오영원은 자신의 아이를 김준에게 부탁한다. 이후 김달삼은 포로로 김준에게 붙잡히는데, 그 때 스토리는 더 극적이게 된다. 김달삼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준은 김달삼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여기서 김달삼을 민족주의자로 재설정 한 이유가 드러난다.

김준 : 당신 인생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말이군.

김달삼 : 그렇소이다. 난 인생과의 투쟁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했어요. 나 같은 불행한 혁명가가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오.

김준 : 혁명가? 아직도 혁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단 말인가?

김달삼 :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이오. 훗날 누가 묻거든, 그는 불꽃처럼 치열하게 살다 간 혁명가였다고... 그리 전해 주시오.

14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122. 참조.

146) 이상복, 「‘팩션’으로서의 ‘기록극’-페터 바이스의 『수사』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8집, 2009, 가을호, p.286.



……중략

김달삼 : (무릎을 꿇고) 마지막 부탁이요. 그 총으로 날 쏘시오, 제발….
(김준, 눈을 감는다) 사무치게 아내와 아이가 보고 싶었어요.
이제 죽는다면 그들 곁에 가게 되니 아무 여한이 없소이다. 어
서 쏘시오, 어서!¹⁴⁷⁾

김달삼은 민족주의자로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아내를 잃고 공산주의자로 남파하였고, 아이를 잃은 줄 알고 허무주의자로 자결한다. 과거의 김달삼이 자결 후 현재의 김준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죽게 설정한 것은 같으면서도 다른 길을 걸어 간 두 인물이 죽음이라는 같은 길을 자살과 타살이라는 다른 길로 맞이함으로써 극적 스토리가 고조된다. 이는 너무도 다른 이데올로기를 품고 살아간 김달삼과 김준이 결국 영원을 통해 하나의 가치관을 지니게 하는 작가의 의도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불멸의 영혼」은 다른 기록극과는 다르게 미학적인 요소를 지닌다. 페터 바이스 역시 기록극은 시사적인 현실을 재현하려 해도 예술적 수단, 즉 무대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술작품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¹⁴⁸⁾

예를 들어 「붉은 섬」이 사실주의 양식으로 무대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데 비해 「불멸의 영혼」에서는 무대를 앞과 뒤로 구분, 두 시공간이 단절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되게 설정하여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시사적인 현실을 빠르게 묘사한다. 이런 무대 설정은 김준의 과거 회고와 현재 협박을 당해 불안해하는 모습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어 긴박감을 형성한다. 또한 휴머니스트를 주인공으로 세운 「불멸의 영혼」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극

147) 「불멸의 영혼」, 『내 생애 단 한번의 사랑』, p.51.

148) 김창희, 「참여작가로서의 페터 바이스 연구 - 기록극 「수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p.32.



중 인물들의 관계를 보여주며 진정한 화해·상생의 의미를 전달한다.

김준 : (손수건을 꺼내 펼친다) 이 하얀 손수건을 기억하오? 40년 넘게 간직해 온 손수건이래요.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난 영원히 잊지 못할 거요. 슬픔에 절여진 티없이 맑은 그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다오. 이제 와 생각하니 사랑한단 말 한 마디 못하고 헤어졌소. 이거 다 부질없는 얘기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을 향한 사랑의 불길은 내 가슴 속에서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맹렬히, 맹렬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아이를 내게 맡기면서 남긴 말, “앞으로 태어날 이 땅의 아이들은 우리처럼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그 말은 아직도 내 마음에 못 박혀 있다오. 회고록의 서문에서 난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집필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족쇄가 되어 쓰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한 거래요. 너무 늦었지만, 날 용서해 주시오.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어찌 당신 혼자겠소. 평화회담을 성공시켰더라면 수 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텐데... 억울하게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원령들 앞에 섰려 사죄할 뿐이오. (잠시)... 어서 빨리 생의 종말이 오길 고대하오. 삶보다 행복한 죽음이 어서 찾아오기를 바라오. 죽음의 사자가 저 문 밖에서 날 부르고 있구려.

이때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처럼 해맑은 소리가 들려온다.

연대장님!.....연대장님!...

김준이 두리번거리지만 보이지 않는다.

무대 상단에서

물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듯

누군가를 애타게 잡으려는 손이 룡편으로 잡힌다.

손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조명이 점차 확대되고



지상을 향해 하강하는 오영원의 우아한 자태가 드러난다.

김준 : (하늘을 우러르며) 오...! 영원...!149)

우익의 대표 격인 김준이 비는 용서는 오영원과 화해로 이어진다. 오영원이 내미는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김준과 오영원은 진정한 상생을 상징한다. 용서와 화해로 결말을 맺는 것이다.

권터 그라스는 “우리는 아우슈비츠를 스쳐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 왜냐하면 아우슈비츠는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역사의 남아 있는 상처 자국이기에 때문에” 150) 라고 말했다. 4·3사건은 발발한지 7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이다. 지금에 와서의 진상규명은 서로의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다. 장일홍은 기록극으로 「불멸의 영혼」을 창작했다. 역사적 사실을 서술해 나가며 우리에게 속해 있는 4·3사건과 마주했다. 그 속에서 마주한 상처를 김준이라는 휴머니스트를 내세워 치유하고자 했다. 4·3사건을 정의하는 그 어떠한 담론보다도 ‘화해·상생론’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리는 의미다.

149) 『내 생애 단 한번의 사랑』, pp.58~59.

150) G. Grass, Schreiben nach Auschwitz, Frankfurter Poetik-Vorlesung, Frankfurt/M. 1990, S. 42.



IV. 결론

이 연구는 장일홍의 희곡 중에서 제주 4·3사건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어떻게 극화되고 그에 따라 작가인식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4·3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여 당시 국내·제주도의 정치상황과 4·3사건의 전개를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 좌익과 우익, 그리고 중도의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그에 따라 4·3사건에 대한 담론의 변화를 다음의 단계로 분류하였다.

먼저 ‘폭동론’은 4·3사건이 좌익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정의를 하는 담론으로 전두환 정권까지 그 정의가 쉽게 바뀌지 못하였다. 이때까지 4·3문학은 고발형식을 띠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고 난 후, 거대담론은 ‘항쟁론’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4·3사건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희곡에서도 ‘항쟁론’에 맞추어 ‘폭동론’에 저항하는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권에 들어 ‘양민학살론’이 거세게 대두되었고 문학 및 희곡에서도 정치이념과 거대담론의 허무함이 고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념정립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보상정책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

III장의 첫 번째 소항목에서는 4·3사건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비극적 가족의 운명을 다룬 두 작품을 연구해 보았다. 그에 따라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가 4·3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형성된 비정상적인 가족 구성이 비극적 결말을 초래함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강신무」는 4·3사건의 피해자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 굿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족 간의 화해로 마무리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소항목에서 4·3사건을 다룬 「붉은 섬」은 역사적인 인물을 작품의 모델로 하여 4·3사건의 전체 과정을 처음으로 다루었고, 역사적 사실



과 ‘폭동론’이라는 거대담론에 저항하며 그것을 비극적 사실주의로 풀어냈다. 또한 4·3사건을 겪지 못한 작가가 직접 4·3사건을 재현하며 마주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세 번째 소항목에서 이전에 논의된 4·3사건 작품들과는 거리를 두어 살펴보았다. 「하모니카」는 4·3사건의 좌익 출신 가족의 현재 문제를 꺼내 들어 사회문제로 확장 시켜 4·3사건에 가담했던 좌파이데올로기의 몰락과 함께 이념 대립의 허무함을 보여주었다. 「이어도로 간 비바리」에서는 4·3사건의 잔해들이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허무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제주인의 모습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네 번째 소항목에서는 「불멸의 영혼」을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보여주며 하나의 담론을 도출해내었다. 핵심적인 것은 작가의 민주주의적인 관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장일홍의 4·3사건을 소재로 한 희곡의 연구를 통해 4·3사건을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4·3사건의 담론변화에 따른 의식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장일홍은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지만 이러한 역사의 잔해가 제주지역의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에 주목하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진정한 상생을 도모하려 했다.

장일홍 희곡은 4·3사건 외에도 제주지역의 신화, 역사, 현안 등을 다루어 제주지역의 연극과 제주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장일홍의 노력은 아직 연구가 미비한 제주연극사에 큰 발자취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4·3사건을 소재로 한 희곡만을 살펴보다 보니 장일홍의 작품 전체에 반영된 작가의식을 연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부록>

4·3사건 소재 희곡

번호	발표지 - 작품 명	작가	발표시기
1	문학예술 - 「산사람들」	함세덕	1950
2	월간문학 -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	장일홍	1988.3
3	「잠수의 땅」	강용준	1989
4	한국일보 신춘문예 - 「강신무」	장일홍	1990.1
5	「캐터필러」	강용준	1990
6	『붉은섬』 - 「붉은 섬」	장일홍	1991.6
7	『살짜기 읍서예』 - 「헛묘」	김경훈	1991
8	『방울소리』 - 「좁네」	강용준	1991
9	『살짜기 읍서예』 - 「꽃놀리」	김경훈	1992
10	『폭풍의 바다』 - 「폭풍의 바다」	강용준	1993
11	『살짜기 읍서예』 - 「살짜기 읍서예」	김경훈	1993
12	「느영 나영 풀멍 살게」	하상길	1995
13	「목마른 신들」	장윤식	1995
14	「동이풀이」	문무병	1997
15	「마지막 빨치산」	김경훈	1998
16	「격랑의 자서전」	김경훈	1999
17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김경훈	2000
18	문학과 창작 - 「하모니카」	장일홍	2000.2
19	자유문학 - 「이어도로 간 비바리」	장일홍	2000.10
20	제주작가7 - 「소옥의 노래」	김경훈	2001.12
21	월간문학 - 「우리를 잠들게 하는 별들의 합창」	장일홍	2002.2
22	「앞산아 당겨라 오금아 밀어라」	오태석	2002
23	『4월곳 한라산』 - 「4월곳 한라산」	김경훈	2007
24	『4월곳 한라산』 - 「4월곳 백조일손」	김경훈	2007
25	『4월곳 한라산』 - 「4월곳 헛묘」	김경훈	2007
26	『4월곳 한라산』 - 「4월곳 산호수놀이」	김경훈	2007
27	『내 생애 단한번의 사랑』 - 「불멸의 영혼」	장일홍	2008
28	『외할머니』 - 「외할머니」	강용준	2012
29	『외할머니』 - 「황금나무과수원」	강용준	2012
30	『외할머니』 - 「해경무렵」	강용준	2012



<참고 문헌>

1. 텍스트 자료

- 장일홍, 『제1회곡집 - 붉은 섬』, 문학과비평, 1991.
『제2회곡집 - 이어도로 간 비바리』, 연극과 인간, 2003.
『제3회곡집 - 내 생애 단 한번의 사랑』, 연극과 인간, 2008.

2. 단행본 - 가,나,다 순으로 나열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해방과 건군』, 1967.
김봉헌·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문우사, 1963.
김익렬, 실록유고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취재반, p.345.
김진성, 『베르그송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루이지 조야, 이은정 역, 『아버지란 무엇인가』, 르네상스, 2009.
문상희, 『한국의 샤머니즘』, 분도출판사, 1982.
북한연구소, 『북한』, 1989년 4월호,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육철식, 『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 1998.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0.
장일홍,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연극과 인간, 2013.11.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전예원, 199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선인, 20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60년사』, 제주특별자치도, 2008.
프리드리히 니체, 최승자 역,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청하, 1989.
함세덕, 「산사람들」, 『문학예술』, 1949.12~1950.3.
한겨레신문사, 『발굴 한국현대사인물』 한겨레신문사, 1992.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비평사, 1978.
현기영, 「한라산의 레퀴엠」, 『나의 문학이야기』,문학동네, 2001.



3. 학위 논문 - 가,나,다 순서대로 나열

- 김문홍, 「합세덕 희곡의 극적 전략과 의미 구조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96.
- 김성현, 「합세덕 희곡 연구-해방 전후 희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1.
- 김수미, 「합세덕 희곡의 대중성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1991.
- 김신영, 「현기영 소설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김창희, 「참여작가로서의 페터 바이스 연구 - 기록극 「수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박상은, 「오태석 희곡에 나타난 기억의 의미와 극적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2012.
- 문상석, 「전쟁과 국가건설 연구 :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 이정숙,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4.

4. 학술 논문 - 가,나,다 순서대로 나열

- 김남석, 「살아남은 자의 기록」, 『제주의 작가들』, 도서출판 심지, 2010.
- 김동운,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방식」,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 김동운, 「합세덕 희곡 <산사람들>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5집.
- 김미도, 『탐라의 비극성-장일홍의 「붉은 섬」을 읽고』, 문학과 비평사.
-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 제주4·3의 담론정치」,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김영목, 「기억과 망각 사이의 역사 드라마와 과거 구성」,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 김영범,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문학과지성사, 1998.
- 김종민, 「4·3이후 50년」, 1999.
- 나간채, 「문화운동 연구를 위하여」, 2004.
- 박명림, 「해방, 분단, 한국전쟁의 총체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6』, 한길사, 1989.
- 박산식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2호』,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 1999.
- 서연호, 「연극으로 되살려낸 제주도 수난사」, 『이어도로 간 비바리』, 연극과 인간, 2003.



- 서연호, 「장일홍의 희곡에 나타난 역사의식」, 『내 생애 단한번의 사랑』, 연극과 인간, 2008.
- 서연호, 「현실에서 재해석되는 제주도민의 과거사」, 『붉은 섬』, 문학과 비평, 1991.
- 송창선, 「제주 출신 작가의 작품 속 배경을 찾아서, 6 : 4·3 그 아픈 가슴은 바람이 되고 섬이 되어」, 『교육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6.
- 안정애, 「4·3과 한국 정부의 역할 : 군부를 중심으로」, 2002.
- 양조훈, 「제주도 메이데이를 통해 본 미군정의 4·3토벌정책」, 『제주 4·3 51주기 기념 세미나 자료집』, 제주 4·3연구소, 1999.
- 이상복, 「‘팩션’ 으로서의 ‘기록극’ -페터 바이스의 『수사』 를 중심으로」, 『세계 문학 비교연구』, 제28집, 2009, 가을호.
- 현혜경,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 4·3과 5.18 문화운동 기초연구', 제주4.3연구소, 2004.

5. 신문 - 가,나,다 순서대로 나열

- 『경향신문』, 2004년 11월 25일.
 『국도신문』, 1949년 5월 15일.
 『동광신문』, 1949년 5월 14일.
 『독립신보』, 1947년 3월 21일.
 『독립신보』, 1947년 4월 5일.
 『독립신보』, 1948년 5월 19일.
 『동아일보』, 1948년 4월 17일.
 『매일신보』, 1945년 10월 11일.
 『문화일보』, 2004년 10월 2일.
 『서울신문』, 1948년 5월 21일,
 『제민일보』 1995년 4월 1일.
 『제민일보』 1995년 6월 20일.
 『제민일보』 1995년 8월 1일.
 『제민일보』 1996년 3월 25일.
 『제주신보』, 1957년 4월 3일.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제주일보』, 2004년 10월 11일.
 『조선일보』, 1957년 4월 3일.



『조선일보』, 1948년 5월 18일,
『조선일보』, 1948년 6월 3일.
『조선일보』, 1948년 10월 20일.
『한성일보』, 1947년 3월 13일.

6. 기타 - 가,나,다 순서대로 나열

장일홍 작가 개인 인터뷰. 2012년 11월 13일. 오후 2시. 신제주로타리 커피숍.

장일홍 작가 개인 인터뷰, 2012년 11월 21일. 오후4시. 신제주 소재 커피숍.

장일홍 작가 전화 인터뷰. 2013년 3월 4일. 오전11시.

“제헌국회 속기록 제1회 제90호”, 1948년 10월 28일.

「통위부 특명」 제52호, 1948년 5월 6일.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Hq.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7, December 20, 194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29. January 5, 1949.

Hq.6th Inf Div, G-2 Peridic Report, No.500, March 2, 194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92, November 24, 194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March 20, 1947.

“Weekly Activities of PMAG,” January 4, 1948, RG 338 :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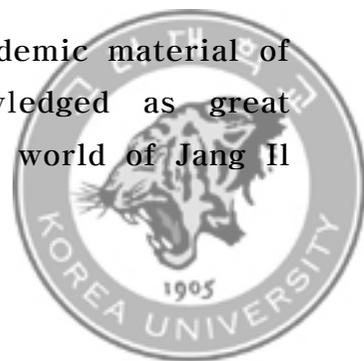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eju 4·3 incident was dramatized and his awareness was changed as writer in a play with subject matter of Jeju 4·3 incident of Jang Il Hong, a play writer.

Jang Il Hong created 11 works, half of his works, making Jeju subject matter much like a Jeju native, and subject matter in 7 of those works was Jeju 4·3 incident. Especially, it is considered that study of his plays of works with subject matter of Jeju 4·3 incident by Jang Il Hong is very important because his accomplishment as play writer was acknowledged in public in the works with subject matter of Jeju 4·3 incident.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are not many study results for Jang Il Hong. There is no dissertation writer study of Jang Il Hong. For example, dissertations that studied plays with subject matter of Jeju 4·3 incident are 「San Sa Ram Dul」 (The people of Mountain) play study, of Ham Se Deok and of Oh Tae Seok 「Ap San Ah Dang Gi-er Ra, Oh Gum Ah Mi Ruh Ra」 (Front mountain, Pull! Knee, Push!), but, they are not specialized study on play with subject matter of Jeju 4·3 incident.

Critics by Kim Nam Seok is the only academic material of Jang Il Hong. His discussion is acknowledged as great achievement that had never existed on play world of Jang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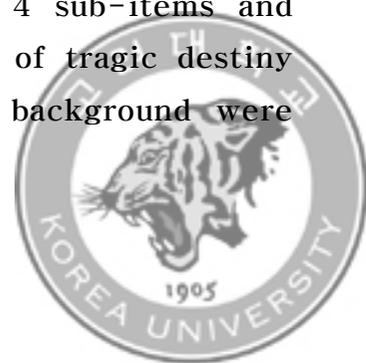


Hong. However, it studied only how play writing technique of Jang Il Hong changed, so it was somewhat weakness that whole study was only in the formal framework. Discussion of Jang Il Hong' s works is also found in work critics of Kim Mi Do and Song Chang Seon. Two discussions are simple and intensive analysis of a work collection or compare it with other genres of works around representative work.

Thus, this article studies how writer' s stream of consciousness that was not analyzed in existing discussions was projected into works. And, it is for whole play with subject matter of Jeju 4·3 incident of Jang Il Hong. For the above study, historical background of Jeju 4·3 incident is first arranged, and it was studied how awareness of Jeju 4·3 incident by Jang Il Hong changed and was consequently dramatized.

First of all, historical background of Jeju 4·3 incident is studied so that domestic political state and that in Jeju island at the time with development of Jeju 4·3 incident are examined. And, it was summarized how it is historically evaluated from the position of left, right, and middle way. Through this, works of Jang Il Hong could be analyzed from more objective viewpoint.

Next, awareness change for Jeju 4·3 incident and dramatization process were classified into 4 sub-items and analyzed. In the first sub-item, two works of tragic destiny of family with Jeju 4·3 incident set as background were studied.



In the second sub-item, 「Bul Goon Sum」 (Red Island) that fully analyzed Jeju 4·3 incident and interpreted by tragic realism was studied. This item has great meaning in that the writer who didn't experience Jeju 4·3 incident directly faced Jeju 4·3 incident through its reproduction.

In the third sub-item, it was examined, differently from Jeju 4·3 incident works that discussed before. Thus, futility for ideology controversy over Jeju 4·3 incident and unsolved Jeju 4·3 incident until now were pinpointed.

In the fourth sub-item, a discourse was derived, showing way of harmony and mutual living. It is most critical fact that writer's popular viewpoint is clearly shown.

This study could analyze how writer's awareness of Jeju 4·3 incident was projected into works through paly study with subject matter Jeju 4·3 incident of Jang Il Hong and how awareness changed depending on discourse change of Jeju 4·3 incident. Especially, Jang Il Hong noted that there exist remains here and there in the area of Jeju Island though it is an unsolved historic problem, and it is very meaningful that true mutual living was sought through raising problems about it.

